

요한 갈통 교수 특별강연회 '미국과 아프간 전쟁 ...'

요한 갈통 교수의 특별강연회가 지난달 30일 90주년기념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열렸다. 북한학과 주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 문명의 충돌인가 구조적 폭력의 폭발인가'란 주제로 진행되어 분교 학생들 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모았다.

▶관련기사 4면(사회)

월운스님 외출상 수상 한글대장경 완간 공적

역경왕장 월운스님이 재단법인 외출회(회장=김숙득)가 수여하는 제 23회 외출상 실천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월운스님은 한글대장경을 번역, 완간해 한글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 그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71년부터 시작된 외출상은 외출 최현배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매년 실천부분과 문화부분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다.

정부교육정책 평가 포럼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참석

한국기자협회(회장=김영모) 대 학인론위원회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라는 포럼을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 △박거용(상명대·영어교육) 한국대학교교육연구소장 △국공립대투쟁본부 대표 정용진 순천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학부제와 모집단위광역화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발제·토론했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양민학살피해자 위령제 오늘(5일) 여의도 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1천여명이 오늘(5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낸다.

해방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합동위령제는 △진헌국 △분향 및 헌화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가족들은 행사 후 전국 유족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민간 인학살 특별법제정을 위한 대규모 거리행진과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고동락' 'TTL' 후보 첫 합동유세

갑 후보, 일산병원 조기개원 반대를 후보, 한총련 탈퇴운동 전개

총학생회·총여학생회선거 1차 합동 유세가 지난 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유세에서는 총여학생회 단독으로 입후보한 정=허고은(중문2)·부=박윤지은(연영3)조와 총학생회 갑 후보 정=주진완(국교4)·부=양희창(반도체3)조를 후보 정=이재광(철4)·부=이동우(전기4)조가 출마동기와 주요공약을 밝혔다.

먼저 유세에 나선 총여학생회 허고은·박윤지은 후보는 "학내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학생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전문화·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총학생회 선거유세는 갑·을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갑 후보인 주진완·양희창 조는 무대 앞에 모의법정을 마련해 새로운 유세형식을 시도했다. 주진완·양희창 후보는 "일산 병원을 예정대로 내년 6월에 개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차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동국대학교를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갑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불교종합병원이 아니라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학생

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측에 전달할 불교종합병원 관련 공개질의서를 낭독했다.

이어 을 후보 이재광·이동우 조는 TTL(Turn To the Left)선거 운동본부주제가와 함께 유세를 시작했다.

'한총련 탈퇴운동'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광·이동우 조는 "노동자에게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주영에게 애도의 말을 바치는 한총련의 통일 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하지 못하는 한총련의 운동은 학원의 문제에



지난 1일 열린 1차 유세에서 총학생회 두팀 후보자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도 혼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제 시행, 등록금 인상은 대학자본의 몸집 불리기"라고 말하고 앞으로 학생들이 고통받는 요인을 직시해 운동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유세장은 양후보의 경쟁으로 뜨거웠지만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에 열기가 달아오르지 못했다.

한편, 2차 유세는 오는 8일 오후 4시 동국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김진성 기자

지면안내

2002 학생회 선거 6~7면
2002 학생회 선거 11월 올해도 학생회 선거는 시작됐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학생회 위기는 계속되어 왔다. 2002 선거를 통해 학생회 위기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통일방안 토론회 4면
학문과 사상의 자유 5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상 11면

보리소

인내의 세 가지

정 승 석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무궁한 우주를 탐색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때풀이 소행성들의 진로만을 뒤쫓는 과학자들도 있다. 유사 이래 별뿔찌꺼기여라도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구와 충돌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행성들의 진로를 추적하는 데만 전력하더니, 이것이 야말로 기우가 아닌가?

그러나 많은 과학적 공상들이 현실로 전개 되었으며, 먼 옛적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대재앙으로 공룡도 멸종하였다고 하니, 그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지구를 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디에선가는 항상 전쟁이 지속되어 온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주적 대재앙이 불발하기 전까지 지구가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강자가 흥분해서 발생한 전쟁은 그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 오기와 흥분과 원한 등이 뒤섞여 이성을 잃게 되면, 핵무기나 화학 무기 등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른다.

인내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참는 것, 자기와 동등한 사람에게 참는 것,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참는 것이 있다. 자기의 주장이나 행동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강자에게 참는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이다. 자기와 동등한 사람에게 참는 것은 싸우기 싫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자에게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을 때, 나는 침묵과 인내로 그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건대, 그 이유는 그 약자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인내를 가장 훌륭한 인내라고 한다.

이 같은 인내를 굴욕으로 여기면서 흥분하여 날뛰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법구경의 말씀이 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진정 나은 것. 그러므로 자기를 다스리라. 마침내 모든 행동에 자제함을 얻으리라."



모정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400회를 맞았다. 보리넷 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선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자신들은 돌아올 줄 모른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발표

오는 14일 부터 수시모집 ... 문과대 등 달라진 모집단위 적용

본교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이 발표됐다. 구체적 일정은 표와 같다. 수시모집은 학교장 추천, 외국어 우수자, 불교계 추천 등의 영역에서 모집하게 된다.

또한 정시모집은 모든 군에서 원서 접수를 받으며 가·다군은 수능 성적만 반영해 선발한다.

한편, 2002학년도에는 달라진 모집단위를 적용해 문과대학에서 문과대학과 인문학부로, 경영대학에서 경영대학과 경영정보학부로, 정보산업대학에서 정보산업대학과 산업시스템공학부로 분할하여 모집한다.

Table with 3 columns: 전형 (수시모집, 가군, 정시모집, 나군, 다군), 내용 (원서교부, 원서접수,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일자 (10. 29(월) ~ 11. 16(금), 11. 14(수) ~ 11. 16(금), 11. 24(토) ~ 11. 25(일), 12. 1(토) 예정, 11. 26(월) ~ 12. 13(목), 12. 11(화) ~ 12. 13(목), 12. 17(월) ~ 12. 22(토), 12. 28(금) 이전, 11. 26(월) ~ 12. 13(목), 12. 11(화) ~ 12. 13(목), 2002. 1. 7(월) ~ 1. 15(화), 2002. 1. 19(토) 이전, 11. 26(월) ~ 12. 13(목), 12. 11(화) ~ 12. 13(목), 2002. 1. 21(월) ~ 1. 26(토), 2002. 1. 31(목) 이전)

"학생회 강화에 노력다짐"

지난 2일 총학생회 입후보자 좌담회 열려

90년대 후반 이후 학생회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갈수록 학생회는 대표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여김없이 학생회 선거가 시작됐다. 매년 허락하는 투표율과 반대되는 후보자들의 유세는 이러한 학생회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선거는 무관심의 골레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 선 학생회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분석하고, 나아가 학생회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 1. 설문조사 -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
2. 학생회 후보자 좌담회
3. 대중적 학생회 가능성

본사에서는 4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총학생회 선거를 조명·분석하기 위해 지난 2일 34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갑 후보 정 주진완(국교4)·부 양희창(반도체과과4)군과 을 후보 정 이재광(철

4)·부 이동우(전기4)군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양 후보들은 내년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였다. 갑 후보는 학자투의 중심고리를 일산병원으로 보고 이를 시작으로 대학발전위원회 구성까지 시도할 것을 밝혔다. 반면 을 후보측은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일산병원 문제의 경우 등록금 삭감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후보들은 노동문제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갑 후보는 6.15 공동선언이 통일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을 후보는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의 시선을 6.15공동선언으로 돌려 노동자들의 투쟁은 관심 밖의 사안이 되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학생회의 강화에 대해 양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호 선거입후보자 제33대 총학생회를 제34대 총학생회로, 제33대 총대의원회를 제34대 총대의원회로 정정함니다.

동대신문사 기획광고
동대신문사가 여러분의 '지성'을 담아낼 그릇이 되겠습니다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시 상: 인문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모집분야: 시부, 소설부, 평론부
응모요령: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시 상: 시부 - 장원 30만원, 가작 15만원, 소설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평론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응모작품에 따라 추후 별도 위촉
제출기간: 2001년 11월 12일 ~ 30일까지
입상발표: 2002년 1월 1일자 동대신문 지상
동대신문사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개통 벤처대회 신청서 다운가능

본교 홈페이지 내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가 지난달 30일 신설됐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이 홈페이지는 △센터소개 △보육능력현황 △센터 규정 △창업가이드 △입주안내 △입주사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제2회 동국벤처주간 벤처창업경연대회 참가신청서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제대학원, 영어번역과 신설 오는 12일부터 신입생 모집

국제정보대학원(원장=송석구·철학)은 영어 통·번역학과를 신설했다. 국제정보업무와 관련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설된 영어 통·번역학과는 오는 12일부터 2002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편, 국제해양정책학과와 국제관계학과는 수강생이 미달돼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직원 체육대회 개최 오는 9일 일산실업농장

동국각주 체육대회가 오는 9일 12시 30분부터 일산실업농장에서 열린다.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는 △축구 △피구 △줄다리기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대 직원노조위원장은 "일산농장에서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며 전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의 주간' 오는 7일부터 모의국회 등 다채로운 행사

'정의의 주간'이 오는 7일 시작돼 3일간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정치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의의 주간은 △7일=오후 3시와 6시 90주년 기념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영화제 △8일=오후 6시 30분 동국관 L501에서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대외정책'의 주제로 정치학연구회의 논문발표 △9일=오후 6시 '현 정권의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의 모의국회가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윤재혁(정의3) 학생회장은 "특히 이번 학기 전공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교양교육 합리적 운영 기대

내년부터 교무처에 전담부서 개설 계획

내년부터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 교양과목의 합리적인 편성·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제 실시 이후 전공이수확정이 줄어들면서 교양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교양과목의 종류는 다양해졌고, 관련업무 또한 늘어 학사지원실과 학과사무실에서 처리하기엔 부담이 커졌다. 이에 본교는 교양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무처 안에 교양교육운영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교양과목은 시간강사가 맡고 있는 강의가 많다. 때문에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어있는 교양수업의 경우, 동일한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 강의의 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양

교육운영실은 이런 교과목에 대해 표준 강의계획서 작성 등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면서 소속 학과가 없는 강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나아가 전공별로 효과적인 교양이수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1학년 사회학개론 △2학년 철학개론 △3학년 정치학개론 등 전공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1, 2학년 학생들은 수강신청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P(Politics)-P(Philosophy)-E(Economics)코스, 정치학-철학-경제학'과 같이 연관성 있는 학문간 교양이수방법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1,2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결정과 수강신청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현재 전공관련 상담은 학업지도교수가 맡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교육운영실은 현 학부생 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전문가 양성'이라는 역할은 대학원으로 넘어가고, 4년의 대학교육은 교양교육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본교 역시 공학계열 교양필수과정인 BSM(Basic Science&Mathematics) 개발 등 교양부문을 강화해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교양교육운영실의 신설은 양적으로 성장한 교양부문을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상록원 앞에 후보자들의 약력과 사진이 광고됐다.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게시판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들의 관심이 투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계산관 옆 휴식처 등 공사 진행 정문 우수관 공사 23일 마무리 예정

계산관 옆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1차 공사가 지난달 26일 마무리됐다.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계산관 옆 벤치주변에 난간을 세웠으며, 앞으로 진행될 2차 공사를 통해 해화별관 옆 복지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문 차량진출을 통제하고 있는 우수관 공사는 현재 조정석을 쌓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23일 끝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몇주 후엔 차량이 정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국관 앞 차량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토목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에 착수한 도서관(가칭)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4.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8월 31일 완공될 예정이다. 원흥별관 공사 역시 지난주 골조공사를 마감해 현재 내장공사를 진행중이며 올 겨울 중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의 연습림에서 진행중인 수련장 건립공사의 공정률은 80%이다.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초청 포럼

정부 교육정책 '자율의 이중잣대' 학부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

이날 포럼은 학부제부터 현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96년부터 시작된 학부제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왜곡돼 알려져 있다"며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대학들은 "몸집 불리기"를 위해 유사한 학과를 대거 신설했지만, 정작 학과 특성을 살린 새로운 커리큘럼은 마련하지 못했다. 서국장은 "교육부는 정책적 배경과 함께, 세계 대학들이 전문인력 배출의 역할을 대학원으로 넘기도록 하고 학부제를 실시하는 추세를 반영해 학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겨용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등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학과 중심의 개념을 탈피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정용진 순천대 학생회장은 "휴학생이 3명중 1명꼴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또는 학교로 옮겨고자 하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대학에 경쟁력 확보를 요구하지만 결국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을 강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겨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는 대학 자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기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박 교수는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학부제를 실시하는 추세를 반영해 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에 밀바탕이 되길 기대한다.

이날 포럼은 교수, 학생 등 학내주체와 대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만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교육의 결과는 단기간에 가시화될 수 없다"는 박겨용 교수의 말처럼 이러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돼 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에 밀바탕이 되길 기대한다.

대학부
dmz@dongguk.edu

강정구 교수 1차 공판 열려

"방명록 사건은 필화" 진술 ... 다음달 재판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1차 공판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강교수는 이날 진술에서 방명록 파문을 '필화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당한 사법적·역사적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만경대는 단순히 김일성주의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도 언론에 의해 김일성주의로만 치환되어 버린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강교수는 "대학에서 주최한 주체사상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음지에서 논의되는 주체사상을 공론화시켜 학술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교수는 지난 1일 고려대 조치원캠퍼스에서 열린 '주체사상 학술토론회'에 참가해 "공소사유의 90% 이상이 반복적인 저술

과 강연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여학연수 프로그램 마련 오는 13일 학림관에서

학생상담센터(실장=고진호·교육학)는 '성공적인 여학연수 가이드'를 오는 13일 학림관 504호에서 3시부터 진행한다.

여학연수나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부수 여학연수기관과 학원부수 여학연수기관의 장단점 설명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과 필요한 서류 △현지에서 거주할 숙소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실제로 여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을 초청해 현지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한전무대

공(空) 수거함

O...며칠 전부터 건물 내 곳곳에 비치된 상자들이 학생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 상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중 학생들이 보고 난 각종 선거유인물을 모이기 위해 설치된 수거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학생들이 많아 이를 재활용해 쓰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수거함 알, "하루가 지나 며칠이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규격 복사기

O...학생회관 1층에 있는 복사기의 용지 선택버튼을 누를 때 마다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데.

알아보니 A4용지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용지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용지 선택이 어렵다고.

복사용지를 때 맞춰 보충하지 못한 직원의 행동으로 복사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A4전용 복사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복사기는 안다. 다른 크기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갈책(?)

O...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몇몇 학생들의 모습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데.

이유인즉 반납한 책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잘라 가는 대출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공 도서관을 소홀히 하는 일부 학생 때문에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의 한 책 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없어~ 당신이 볼 것 없네?!"

배반의 휴게실

O...중앙도서관 여학생휴게실에서 의문의 생명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던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데.

휴게실 구석 스텝 밑에 쥐가 살고 있어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기 때문이다.

비록 오래된 건물이라고는 하나 쥐가 살고 있을 정도라면 실내 휴게실의 위생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고양이야! 부탁해."

제2회 동국벤처주간 (11. 12 ~ 11. 16)

벤처기업의 올바른 홍보와 벤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동국인에게도 벤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제2회 동국벤처주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 창업 경연 대회

1. 참가자격 : 본교 재학하는 대학원 (석/박사) 및 학부생 대상
2. 모집 및 심사
 - ▶ 모집기간 :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 ▶ 심 사 : 1차 서류심사후, 우수자에 한하여 11월 16일 발표회를 가짐(오후2시 동국관 L407)
 - ▶ 발표 및 시상 : 11월 19일(예정)
3. 시상내용
 - ▶ 대 상(1팀) : 100만원 - 창업지원금, 창업지원단 Soho 입주기회 부여
 - ▶ 우수상(1팀) : 70만원 - 창업지원금
 - ▶ 가 작(2팀) : 50만원 - 창업지원금
4. 참가요령
 - 가. 본교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작성
 - 나.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다. 2차 설명회 발표에 대비한 발표자료 준비
5. 제출서류 : 벤처 창업 사업계획서(소정양식)2부와 3.5" 디스켓
6. 제 출 처 :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동국관 M동 2층 201호)

- 11월 13일(화) 14시 문화관 세미나 1실 창업과 창업마인드 : 이경희(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 11월 14일(수) 16시 문화관 세미나 1실 창업환경분석 : 이영직(브랜디아 컨설팅 대표)
- 11월 15일(목) 14시 문화관 세미나 1실 21세기 여성창업의 비전: 김은수(새턴 커뮤니케이션 대표)

창업지원단 · 동대신문사 · 여학생실

200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공고

1. 계절학기 업무절차 변경
 - 가. 변경(적용시기) : 200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부터
 - 나. 업무절차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수강신청 및 정정	서식 신청 및 필수	드림스(교내PC이용) 및 Dial-up Modem 이용	수강신청 편의제공
수업료 납부	학사지원실	본교 제일은행	수납처 변경
2. 개설대상 교과목 : 2001학년도 1,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계절학기 전과목(실험실습, 사이버 강좌 제외)
3. 수업일정 : 가. 2001. 12.17(월) ~ 2002. 1. 7(월), 월~토요일 16일간
나. 공휴일 제외
4. 강좌개설 기준인원 : 가. 원정 및 교외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과목 : 10명 이상
5. 수강지역 및 신청방법 : 가. 수강지역 : 200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방법 : 6명씩 이내
6. 성적처리
 -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 다.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진로 결정시 반영됨.
 - 라. 성적평가를 원적으로 하며, P(학점(과목))를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7. 수강신청
 - 가. 기간 : 2001. 11. 13(화) ~ 11. 15(목), 3일간
 -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 (1) 서울캠퍼스
 - (가) 시간 : 11.13.(화) 오전 09:00부터 11.15(목) 24:00까지
 - (나)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8쪽 뒷면 학습실업용포 참조)
 -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에서 신청서로 접수
 - 다. 계절학기 신청 방법 (절차 변경) : 2001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사지원실에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수강신청 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Dial-up Modem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2001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8쪽 참조
 - 라. 수강신청 유의사항
 - (1) 사정에 2001학년도 1·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명 참조하여 수강신청
 - (2)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 (3) 수강신청시 본인 연락처(TEL,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마라.
 - 마. 수강료
 -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65,000.
 -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기부담.
 - (3) 수강료 납부는 수강신청 정정후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업료 납부고지서 발급후 제일은행(동국대출장소)에 납부
8.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료 환정표 : 2001. 11. 23(금) 예정
9. 수강신청 정정
 - 가. 기간 : 2001. 11. 27(화) ~ 11. 28(수), 2일간
 - 나. 제 한 : 최초 수강신청후 폐강, 시간중복의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정정 가능
10. 수업료 납부
 - 가. 기간 : 2001. 12. 3.(월) ~ 12. 5(수), 3일간
 - 나. 방법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업료 납부고지서 발급후 제일은행(동국대 출장소)에 납부
 - 다. 유의사항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 무 처

학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02년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작한 많은 양의 선전물들이 학우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받아 본 선전물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각 건물에 배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년 학생회선거

편입생을 위한 시간

- ▶ 대 상 : 본교에 재학중인 편입생
 - ▶ 시 간 : 2001. 11. 6(화) 오후 3~5시
 - ▶ 장 소 : 학림관 강의실 J405호
 - ▶ 내 용 :
 - 꼭 알아야 할 학사제도 안내 · 시험담당 작성방법 지도
 - 좋은 레포트 작성법 지도 ·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
 -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 ※ 문 의 :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전화 2260-3932, 3931, 3930

학생상담센터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특강

본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인수자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 합격율을 제고하고자 교육학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1년 10월 31일(수) ~ 11월 16일(금)
- 강의시간 : 매일 17:30 ~ 19:10 (100분 강의)
-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J410, J501
- 대 상 : 본교 교원임용고사 준비 사범대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인수자
- 수 강 료 : 무료 (교재제공)
- 시간표

일 자	과 목 명	강 사	장 소	비 고
10/31(수)	교원임용고사 최진경향 및 대책	이찬휘	학림관소강당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11/1(목)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심연미	학림관,601	
11/2(금)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심연미	학림관,410	
11/5(월)	교육행정 및 교사론	이영희	학림관,410	
11/6(화)	교육행정 및 교사론	이영희	학림관,601	
11/7(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남경희	학림관,601	
11/8(목)	교육과정 및 평가	고진호	학림관,601	
11/9(금)	교육과정 및 평가	고진호	학림관,410	
11/12(월)	교육사 및 교육철학사	박범석	학림관,410	
11/13(화)	교육사 및 교육철학사	박범석	학림관,601	
11/14(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남경희	학림관,601	
11/15(목)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학림관,601	
11/16(금)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학림관,410	

사 범 대 학

취업연령제한 폐지 추진 논란

‘유명무실법’ 전략 막기위한 노력 필요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을 맞은 요즘 대학가의 이슈 중 하나가 입사시험 시의 연령 제한이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대학문을 나서서 이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사안이다. 하지만 가정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만학의 꿈을 이룬 젊은이, 재수나 삼수를 거친 이, 수년동안 고시를 준비했다가 취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 IMF 사태로 인원감축의 태풍을 겪어야 했던 이른바 ‘버림받은 학번’이라 불리는 90, 91학번들은 연령제한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아예 취업문조차 두드려 보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연령차별 금지법 시행 발표

이런 이들에게 최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며칠 전 정부는 기업 입사연령제한 철폐를 법제화한 ‘연령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2월 거론됐던 문제다. 당시 이현재 재정부 장관은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기업의 입사 연령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한 3월에는 금융기관 및 거래소나 협회 등 금융 유관단체들까지 인력 채용시 나이제한

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령제한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발표를 계기로 현실화 될 경우 앞으로 연령이 입사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시대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취업공고를 게재할 때나 이력서 작성, 면접시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차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 ‘연령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해 연령 제한 금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UN도 일터에서 연령과 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권고로 해석된다. 이를 볼 때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연령제한폐지를 법제화해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식은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입사연령을 제한한 것은 연공서열의 원칙에 길게 뿌리를 두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은 선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조직문화의 형성에 문제가 많았거나, 부하는 상사보다 나이가 적어

야 일을 시키기 쉽다는 등의 의식이 입사 연령 제한이라는 저변에 숨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조직 내에서 연공서열제가 빠르게 붕괴되고 그 자리에 성과급 제도, 인사고과에 따른 승급제도 등의 새로운 인사제도가 급속히 파고들고 있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나이와 같은 지난날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 보여진다. 능력중심의 사회에서 거스릴 수 없는 추세인 것이다.

연령제한 폐지 앞장서야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실시하겠다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자칫 사문화되어버리는 것을까 하는 점이다. 성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이 법제화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은 아직까지도 여성 평등 고용이나 장애인 채용을 등한시하고 있다.

취업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무리 시대적인 요구와 능력중심 사회의 추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관심하



김 일 먼 한국취업문제연구소장

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법률적으로 볼 때 이를 여길 시에는 일정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진정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취지에서 연령제한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연령제한 폐지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로 평가됨을 알아야 한다.

반면 지금까지 연령 제한의 불이익을 받았던 응시자들은 단순히 응시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한 능력향양과 노력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취업연령제한이 사라지면 입사시험 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은 앞으로 ‘그 나이가 되도록 취직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문제삼게 될 뿐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논란

사건진위여부 놓고 노·정대립 심화

집시법 개정통해 ‘법에 의한 노동통제’ 막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재구속 되자 검찰과 노동계가 사건의 진위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2일 단 위원장이 검찰에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자진 출두하면서 하반기 노동관계가 전반기와 달리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단 위원장은 남은 형기가 끝나자마자 재수감 됐고 이후 민주노총은 정부가 남은 형기만 복역하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베풀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건의 중재를 맡은 김승훈 신부가 지난 7월 28일 당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광옥 민정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단 위원장의 남은 형기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수배노동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자진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선처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법대로 강행한다는 ‘원칙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발하며 오는 11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단 위원

장 석방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정의구현사제단 등 천주교 역시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일부 정치권은 “선처를 부당한 자체가 잘못”이라며 법 앞에 예외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 위원장 구속을 당연시하는 반응을 보인다. 더욱이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뭔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백만호 통일대외협력국부장은 “노동문제를 다룰 때 법의 논리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이 사용자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자칫 ‘법에 의한 노동통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손나구 교육선전실장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법에 의한 노동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단 위원장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3년 9개월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660여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동안 구속된 수를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검찰은 단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2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규정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사관, 국회, 총리공관 100미터 앞 집회 금지, 재산 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집회 종결과 자진해산 요청을 받게 되는 조항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해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법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단 위원장 사건으로 인해 노정은 서로 신뢰를 잃은 채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노동계와 정부는 ‘좌대적’이 아닌 ‘함께’ 해야 할 관계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노정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야 비로소 단 위원장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설

취지 못살린 반쪽 행사 아쉬움 남아

‘2001 평화촌 세계작가회담’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막을 내렸다. 세계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노벨상 수상자 몇몇이 축전을 보낸 만큼 평화촌 세계작가회담에 세인들이 보여준 열의는 가히 대단했다.

그러나 가슴 한 켠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이 행사는 본래 평화촌 세계작가회담이 아닌 ‘2001 평화촌’ 행사였고, 지난 ‘8·15 평양 민족통일대추전’에서 남북의 문화예술인이 만나 평화촌 행사를 성사시킬 것과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져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남북의 문화예술인과 민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평화촌을 만들겠다는 꿈은 세계를 뒤흔든 전쟁의 여파로 결국 행사 불허라는 정부의 방침을 불러왔고, 남측만의 반쪽 평화촌이 되어 버렸다. 정부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 역 근처 민통선과 비무장지대에 마련될 행사터의 안전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북한의 탄자균테러 가능성’에 대한 망언과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반공 입김이 정부가 평화촌 행사를 불허하도록 부채질한 일등공신임은 불 보듯 뻔하다.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러운 마당에 더욱 소리 높여 평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세계 유일의 냉전·분단 국가가 오히려 평화 축구 행사를 제재하고 그 내용과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통탄할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촌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때문에 평화촌은 올해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채워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서로를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닌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는, 한반도가 하나되는 행사여야 할 것이다.

경주캠 학생회, 학생들 알 권리 보장해야

총여와 그를 지지하고 있는 일부 단체 학생회 및 자치기구에서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학생들의 ‘알권리 박탈’과 기자의 ‘취재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학생들의 알권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조인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건설한 학생회의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하며 올바른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교환을 기본적으로 행해야 한다. 주권자로서의 학생이 민주적인 사업진행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보공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언론인들은 학생들의 ‘알 권리, 알릴 권리’를 위탁받은 심부름꾼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학생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 그들의 취재거부 이유가 과거 여학생 휴게실 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 문제 해결책과 관련하여 보도매체 접근이유권이라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취재거부만을 내세우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그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생회의 불투명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학생들에게 학내상황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도 그것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이러한 행위들은 순수한 의도로 보여지지 않는다.

학생회는 기자의 취재권을 침해하지 않고 학생들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공인된 도리라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동약로

최소한의 자질



“수업시간에 웬 스피커 소리야?”
 “요즘 한창 선거철이라 선거 운동하는 거지 뭐.”
 동국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 중 들려오는 스피커 소리에 얼굴을 찡푸린다.
 “이거 원 포스터 붙일 지리가 하나도 없네.”
 “운동 선거 후보자 알리기 일색이잖아?”
 모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려던 학생들은 건물 내벽에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선거관련 포스터들을 보며 이내 게시물 붙이기를 포기하고 만다.
 요즘 학내 곳곳은 몇 년 만에 처음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후보자를 알리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는 구호 외치기, 포스터로 후보자 알리기, 공약 사항 지지 서명 받기 등 후보자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는데 여념이 없다. 매년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에 더욱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매번 이런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나?”
 선거관련 포스터를 보는 학생들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을 보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공약으로 느끼지 못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 이벤트성 광고에 주력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지속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학생회의 주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은 거창한 공약 역시 중요한 테지만 일반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손상민 기자
 neo8292@dongguk.edu

통일위한 전략적 사고 필요한 때

통일방안 토론회 열려 ... 남북정부 적극적 역할강조



지난달 26일 열린 통일방안 토론회에서 본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남북관계가 또 한번 약제를 맞았다. 얼마전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으나 미국 테러사건이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달 26일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로 통일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아태평화재단 김근식 연구원,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의 초점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서로 공통

성이 있다고 인정'해 정상회담이 남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지난 6·15 공동선언 2항의 의의와 의미해석에 모아졌다.
 고유환 교수는 "남북이 분단이후 최초로 상대편의 통일방안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측의 통일방안이 서로 목적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통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민경우 사무처장도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던 두 나무가 일시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이라는 예를 들어 남북의 통일방안이 형태 상으로는 흡사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근식 연구원은 '통일방안 무용론'을 내세우며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통일 분위 조성에 도움이 안된다는 독특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과거 정권이 그동안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여러번 발표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선전용에 불과해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6·15 공동선언도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과정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하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 역시 "통일은 방안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통일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경우 사무처장은 통일 전략과 방안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통일방안이 정해져야 비로소 통일 전략도 논의될 수 있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남북 정부가 적극 나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며 다음 대선에서 통일지향적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장해진 방안대로 일정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통일방안 논의는 향후 통일 국가의 상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여야 통일정책 비교 포괄적 VS 전략적 ... 실천적 방안은 부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국민의 신임을 얻고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퍼주기’ 식 지원정책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발언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가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와 그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한 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두 의원은 강연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이한 태도를 드러냈다.
 여야의 통일정책은 당론에 입각한 것으로 다소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포괄적 상호주의’와 한나라당의 ‘전략적 상호주의’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인도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경제태세를 거두고 자발적으로 대화에 나서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경제를 도와 주고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가 전제된 대북지원을 추구하는 전략성을 띤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의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입장도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얼마전 북측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연기를 통보한 이후 이에 대응하는 여야의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상호주의에 대한 양당의 상반되는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3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인 동시에 재고미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산가족문제는 결코 북한의 전략적 흥정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대북 쌀지원은 유보돼야 한다”고 촉구한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여야의 통일정책과 방안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시행에 있어 실제적인 실천노력보다 선전이나 대외과시에 주력해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에 더해 보수언론들은 여당의 햇볕정책이 북측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른 아닌 대북포용정책의 발목을 잡으며 남북관계진전 움직임에 매번 찬물을 끼얹고 있는 한나라당의 보수적 태도라는 지적이 많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는 현 통일정책의 개선책을 세움과 동시에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통일방안을 정립해나가기 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요한 갈통 교수 특별강연회

“비폭력 저항만이 전쟁 멈추는 유일한 길”

통 교수의 강연이 지난 30일 본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열렸다.
 7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평화학자로 널리 알려진 갈통 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문명의 충돌이기보다 미국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주장했다.
 ‘문명충돌’은 난센스
 그는 우선 이번 테러 사건을 접한 미국인들의 분노와 슬픔을 찍은 사진과 미국에 의해 공격당한 사람들이 오열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며 테러의 원인이 다

른 곳에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테러’의 의미가 그것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유와는 상관없이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230여건에 달하는 해외 군사 개입, 북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흑인 노예제도, 수백만의 양민학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하루소득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층 양산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뜻한다.
 그는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에 대해 한마

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십자군 원정 때부터 졸군 이슬람 제국들은 미국을 선두로 한 기독교 국가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충돌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다.
 전지구적 연대로 전쟁 막아야
 그는 이번 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슬람 성지에서 철수 △팔레스타인 인정 △이라크에 대한 제재 풀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공개적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나 항의 메일 보내기 등으로 압력

을 가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폭력으로 아파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 안보와 전지구적 연대는 인간 생존에 필수 항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갈통 교수는 비폭력 저항이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로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당시 폭력에는 응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폭력보다 더 위대한 힘은 비폭력이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이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 백해무익한 소모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편견을 버리고 세계 평화 운동에 동참하라”는 갈통 교수의 말은 그래서 더욱 새겨들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손상민 기자
 neo8292@dongguk.edu

진보적 학문공동체의 사명

변혁적 인식 넘어 사회건설 주체로

비판적 성찰 통해 과거모순 극복하고 지적 도덕성 확립해야



발제 중인 서울대 김진균(사회학) 교수.

본교 대학원 사회학과와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학과 공동주최로 지난달 27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 - 강정구 교수의 학문과 사상'이 열렸다. 1,2부는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학문적 궤적 △통일관 △대북관 △대미관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3부는 '학문·사상의 자유와 진보적 학문공동체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김진균(사회학) 교수가 발제했다. 이날 김진균 교수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 사회에서 학자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1948년 이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가

국가를 지배하면서 언어까지도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됐다. 이에 처참 민중, 사회주의, 자본주의, 평화통일 등 사상이 드러난 용어는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들은 1960년 4·19혁명 당시 잠시 전단과 선전물 등에 나타났으나, 다음 해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모두 '반공'이라는 국시에 의해 소멸됐다. 70년대 어느 법정에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 피고인은 비약적 삼단 논법에 의해 '이적행위자'로 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들어 4·19가 '혁명'으로 재평가되면서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민중, 민족 등의 단어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김철이 사회과학계에 계급연구를 촉발했다는 이유로 충북대 서관모(사회학) 교수를 소환하자, 교수들은 학문자유 침해사건에 대한 범고수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가해졌다. 1987년 10월 판매금지 도서 중 451종이 해금되었음에도, 새로운 목록은 더욱 광범위하게 구성됐다. 1989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민주사회와 사상의 자유' 공청회에서는 경찰이 민간인을 검거 소지 혐의로 구속할 경우, 여과장치 없이 일심판결까지 가게 되는 현행제도

가 지적되기도 했다.

90년대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면서 북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더욱 범위가 넓어진 이적표현물에 대한 조항으로 많은 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도서목록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단계는 남과 북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족구성원 삶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할 때다. 지식인,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 독재치하 부당한 소수권력이 민족 전체의 명운과 이익을 독차지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식인과 학자들이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회를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자들로 구성되는 진보적 학술공동체의 역할은 80년대 변혁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 과거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욱 넓어진 지적 도덕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학자, 그리고 진보적 학술공동체는 지나간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사회건설에 반영해 새로운 사회에 대처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리=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화훼식물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은 생활에 다소 여유만 있으면 취미 생활을 통한 정서적 만족을 갈구하는 것이 본능이다.

따라서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경제사정이 호전되자 오염된 환경과 복잡한 기계적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감상할 욕구가 생겼다.

화훼식물은 우리 인간의 생활환경을 미화시키고 즐거움과 위안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는 가정의 실내장식과 아울러 직장 등 사회 각처에서도 다수의 꽃식물과 더불어 자연 속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국민경제가 윤택해지고 문화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가정의 실내 및 실외 장식을 위시하여 공공시설의 미화로 화훼식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되어 왔다. 아울러 상당히 많은 국내 재배 화훼식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 수출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요사이 각종 국제행사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화훼식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지할 수가 있다.

화훼식물은 채소나 과수에 비하여 그 종류와 품종이 대단히 많으며 시대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재배하고 있는 화초식물(花草植物)의 수는 약 8천 여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난초와 장미식물의 품종수가 1만 5천 여종 이상으로 가장 많고 Tulip 8천품종 이상, Dahlia 7천품종 이상 등 품종분화가 매우 다양하다.

아름다운 식물은 인류의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활용해 왔으며 문화가 발달할수록 활용도가 상승했다. 이외에도 전쟁이나 굶주린 시절에 하향한 것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일치된 현상으로서 그 나라 문명의 척도는 화훼식물의 소비량과 정비례하고 있다.

화훼식물의 실내장식용 수요는 주로 절화(切花, 꺾꽂이용)와 분식물(盆植物)인데 최근에 이들의 급격한 증가 대규모 화훼식물의 생산으로 유도되었으며, 각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관상식물의 소비량이 증대되었다.

특히, Monstera, Philodendron, African violet 등의 실내식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 보급되었으며, 절화용으로는 Carnation과 장미 및 국화 등의 식물, 정원용으로는 Petunia, Marigold, Zinnia 등의 식물이 개량된 신품종으로 보급되어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부터 세계 각 나라들의 시가화단(市街花園)이 증가함에 따라 한해살이 화초식물과, 두해살이 화초식물, 숙근초 식물 및 구근초 식물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도시미화와 관광지 개발, 공원신설, 환경오염 제거지대 건설 및 정부의 환경에 대한 사업 등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미적 생활을 꾸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원수 및 화목류의 수요와 생산이 갈수록 증가되고 특히 인근 일본으로의 화훼식물 수출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벤처 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창업지원단(단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내일(6일) 오후 1시부터 원흥관 103호에서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

본교 벤처주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벤처 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지소프트의 최충엽 사장이 강연한다.

한의학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

한의학연구소(소장=최달영·한의학)는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한의학과 국제세미나실에서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장 및 혈관 질환의 최근 진보'를 주제로 중국 상해 중의약대학의 Ping-Dong Zheng 교수와 본교 한방병원 정지천, 윤철호 교수의 연구교류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수동정



▲임동희(사학)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UN총회 정부대표로 참석.

강박증, 현대인의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

신경전달물질 저하로 생긴 정신질환 ... 전문가 치료 필요

과거 사람들은 흉수, 지진같은 자연재해나 죽음, 질병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미지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려는 나름대로의 행동을 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나는 경우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늘이 노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하늘을 달래는 제사 같은 의식을 시행하게 하고 그런 의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강박증 환자에게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특한 행동의 의식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하루에 손을 20번씩 씻는 환자는 '이 세상이 세균으로 득실거리고 오염되어 있다고 자신만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면 병에 걸릴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손을 씻는 행동 즉, 의식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손을 닦을보다 자주 많이 씻는다고 강박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일 수도 있다.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어 지적을 받으면 그 행동을 의식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반해 강박증은 행동을 의식하고 있어 알면서 행동하게 되고 만약 강박적인 행동을 못하게 한다면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는 점

에서 다르다. 강박증은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강박사고는 원하지 않은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쾌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불안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강박증에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다. 이미 언급한 손 씻는 경우처럼 지나친 청결에 대한 강박증, 가스 불이나 문고리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점검하고 확인하며 반복해서 의심하는 강박증, 자신의 신체적 질환이나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신체적 강박증, 물건을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두어야만 하는 균형이나 정확성에 대한 강박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격성에 대한 강박증,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근친상간적 생각이나 성도착적인 생각 같은 성적 강박증,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는 축적에 관한 강박증 등이 있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강박증의 원인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저하가 강박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가

장 우세하다. 그래서 현재 강박증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은 세로토닌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질과 가정환경 등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도 약물치료와 더불어 각 개인에 따른 정신치료와 사회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된 세로토닌 특이 재흡수 차단제(SSRI)를 약물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박적 성격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정신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뇌의 특정부위에 신경회로를 차단하는 미세한 뇌수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뇌의 일부분에 자기장을 걸어주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기도 한다.

강박증은 혼자 의지로 이겨내는 증상이 아니라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뇌의 질환이다. 그런데도 강박증 환자가 발병 후 치료를 받으러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을 통해 강박증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 증상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식
용인정신병원 교육수련부장



학생이 공감하는 대중적 학생회를 위해

실천적 공약이행으로 '위기'에서 탈출해야

11월, 학생들의 '자치조직 세우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서울캠퍼스는 학생회 선거로 분주하다. 하안 피를 가슴에 두르고 등교시간에 정문과 후문에서, 수업시간에 강의실을 돌며 '한표'를 부탁하는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이 동각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현수막과 포스터, 각 선거운동본부의 자료집 등 학내는 선거전으로 분주하다. 더욱이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4년 만에 운동진영이 다른 두팀이 출마했다.

후보자들의 선거전은 여는 때보다 치열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해 보인다. 지난 1일에 열린 1차 합동유세에서 소수의 학생들만이 참석해 역시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됐다. 최근 봉사 대학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86%가 '관심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총학생회, 과연 대중적 조직인가? 혹은 외인구단인가?

85년 학도호국단 이후 동약에 학생들의 손으로 '민주학생회'가 건설된 이래 학생회는 대학 사회를 상당 부분 주도해왔다. 학생회는 자치 기구로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군사정권에 투쟁하는 정치적 역할도 함께 수행해온 것이다. 당시 학생회는 학생들과 호흡하며 비민주적 한국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학생회의 위기'가 제기되어 왔다. 갈수록 학생회의 사업들이 학생들의 무관심에 의해 외면당하는 등 학생회는 대표성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학생들이 없는 대동제와 학생들 대부분이 총학생회장의 이름조차 모르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분명 80년대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회를 향해 학생들이 지지의 눈길을 보내던 그 시절과는 달랐다.

과연 무엇이 학생회의 위기를 가져왔는가?

과연 무엇이 학생회의 위기를 가져왔는가? 우선 90년대 들어서 보이기 시작한 학생들의 개인주의적·탈정치적 성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학생회 위기 담론이 형성될 때마다 매번 제기되어 온 것이다.

매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50%를 넘기지 급급했고, 학생회의 사업들은 학생대중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학생회가 제시하는 정치적 담론들은 결국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활동에 괴리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는 곧바로 학생

회의 정치적 역할의 상실로 이어졌다. 97년 도입된 학부제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했다.

학부제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기층 단위의 인과 학생회의 위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96년 '연세대 사건'과 한총련 이적규정 등 운동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학생회 운동권은 침체를 거듭했다.

'민족 자주'의 정치노선을 내세우고 출마하는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들은 당선과 함께 수배 생활의 길에 올랐다.

이처럼 학생회의 위축은 학생운동의 침체로 이어졌고, 학생운동의 침체는 다시 학생회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며 학생회는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학 사회의 변화에 학생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화된 학생들의 정서들을 하나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또한 시대의 정치적 과제들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제시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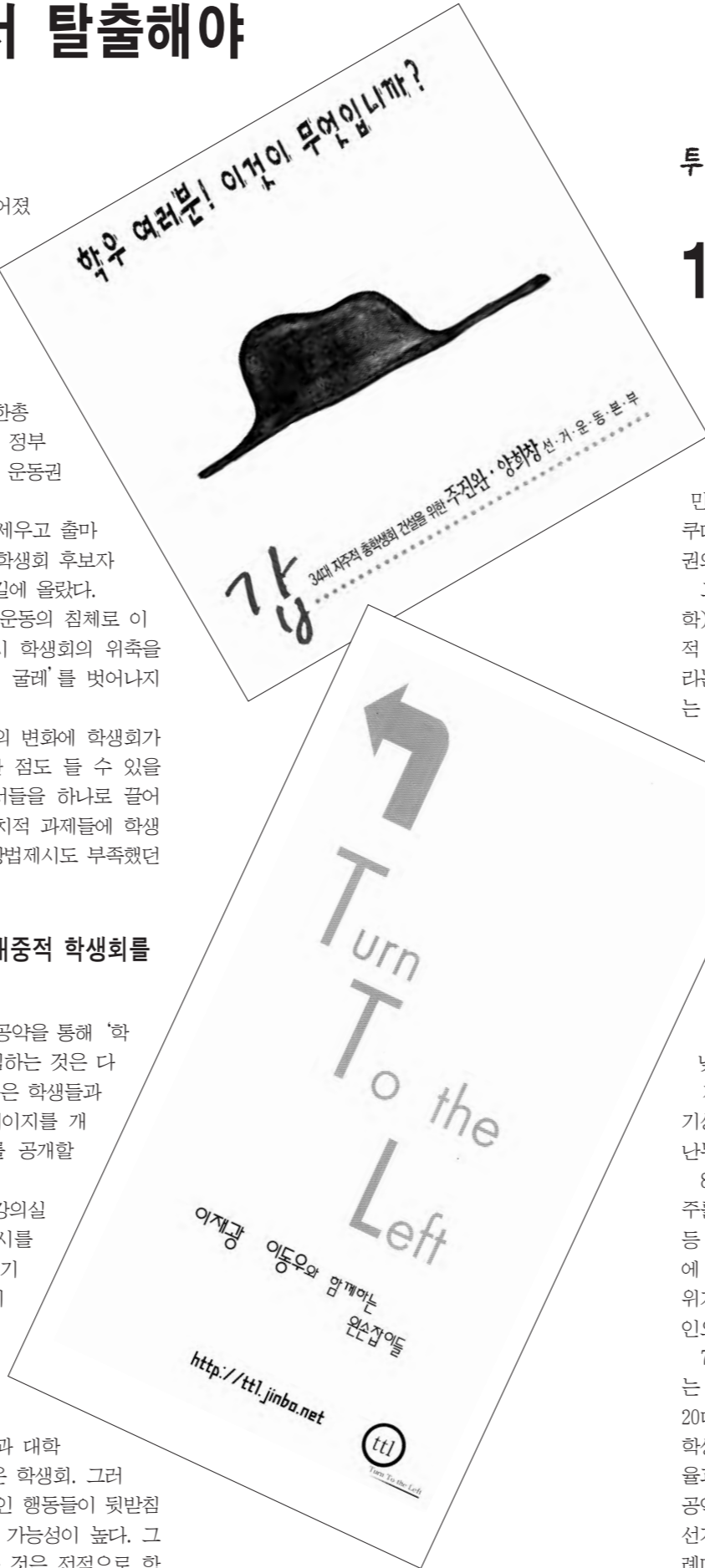
실천적 고민을 바탕으로 대중적 학생회를

내년 총학생회 입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학생회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후보자 측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갑 후보는 공약에서 주 5회 강의실 인사와 매주 이동총학생회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기로 했다. 을 후보는 도서관 앞에 상설 의견란을 설치해 의사소통의 창구를 좀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 학생회는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있다. 학생운동과 대학 사회에 가장 커다란 획을 그어온 학생회, 그러나 학생회 입후보자들의 실천적인 행동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현중 기자
dizzy20@dongguk.edu



투표율로 본 총학생회 선거역사

16년간 민주적 '자치조직' 세우기

85년 '부활'에서 최근 '침체기'까지

1985년 총학생회의 부활은 본교 학생들의 민주화를 향한 투쟁의 성과였다. 1980년 5.17군사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학생회를 해산시키고, 친정권의 학도호국단을 재창설한지 5년만의 일이었다.

그러한 배경속에 실시된 1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는 4팀의 후보가 나서 경합을 벌였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모든 후보가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오랜만에 치러지는 학생회 직선에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68.4%가 투표에 참여했다.

총학생회 부활 이후 소위 운동권 학생회는 대중을 포용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결국 86년 19대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의 정치적 활동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당시 학생운동의 양축을 이루던 NL(민족해방)과 CA(재현의회)는 이듬해 연합후보를 내세운다. 이들은 결국 비운동권과의 대결에서 당선되지만, 선거과정에서 정과간에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로는 매우 낮은 수치인 52.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총학 경선은 후보자간 극심한 대결로 기성 선거에서나 볼 수 있는 상호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기도 했다.

80년대 말 치러진 선거는 '모후보는 모기관의 사주를 받았다' '모후보는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등 악성루머가 나돌았으며, 93년에는 선거운동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혼탁한 선거 분위기는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73.6%의 최다투표를 기록한 90년 21대 총학선거는 전년도 총학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대 총학생회의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이는 높은 투표 참여율과 3차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과학적 학자투'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가 학생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실감케한 사례다.



96년, 학생회는 위기에 직면한다. '연세대 사건'과 학부제 실시는 학생회를 위축되게 했고, 이는 학생회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그해 처음 단독후보가 출마했고, 과반수를 겨우 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저조한 투표율은 97년 경선에서도 재현됐으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된 단독후보 출마와 찬반투표는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이렇듯 학생회 선거는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4년만에 치러지는 총학 경선은 무관심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생회를 직접 선출하는 '소중함 한 표'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말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가상 시나리오 - 김대리의 박하사탕

현실이 되어버린 잊혀진 구호들

공허한 메아리에서 벗어나 대중적 외침으로

2010년 11월 01일 (현재)
OO주식회사의 김동국 대리. 요즘 그는 회사에 불어닥친 정리해고 바람 때문에 한창 고민 중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이제 둘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더욱이 활발한 노조 활동으로 회사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그로서는 하루하루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후우~' 작잡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태우다 문득 대학 시절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학생회의 구호가 떠올라 쓴웃음을 짓는다.

2005년 11월 01일 (5년 전)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 실업자 100만의 시대' 연일 TV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취업 관련 뉴스는 예비 사회인인 김동국 군의 가슴을 무겁게 한다. 취업 재수생이 되지 않기 위해 김군은 오늘도 도서관을 찾는다. 전공공부, 영어, 그리고 일본어 회화까지... 해야할 공부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에게 취업을 제외한 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 등은 더 이상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물론 학생회가 준비하는 행사는 말할 것도 없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서관 앞에서 총학생회 입후보자 합동연설이 진행중입니다. 동약을 지나는 많은 학우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이곳에 귀를 기울여 ..."
갑자기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도서관 학생들은 연성을 높이기 시작한다.
"재네를 또 시작이네.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야봐라. 그러다고 사회가 바뀌는가."
"비싼 등록금 내고 왜 난리야? 할 일 없으면 떠

들지나 말지."
투표일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부탁하며 바쁘게 동약을 누비는 입후보자들.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 역시 공허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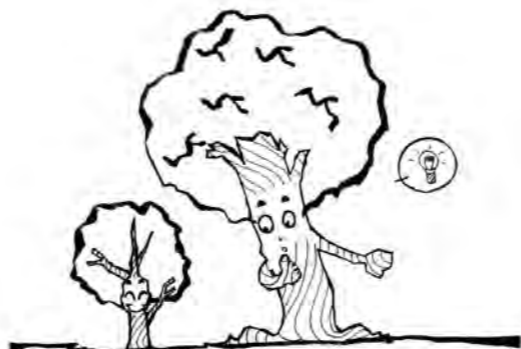
"투표요? 관심 없어요." 그냥 쌀쌀하게 대답하고 어느 때처럼 도서관으로 향한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학생회가 건설됐지만 학생들은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예전과 같은 학생회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고 느낄 뿐이다. 김군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신입생이었을 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이 외치는 똑같은 구호와 방식은 오히려 학생들을 멀어지게 한다.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학생회에 등을 돌린다.

2000년 3월 01일 (10년 전)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온 김동국 군. 처음 접해보는 대학 문화들은 고교시절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구조조정 분쇄하자' 등과 같은 정치적 구호들도 낯설기만 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선배들을 따라 외치며 구호를 외쳐보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 너 데모하고 다니냐? 슬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다 △△학과 떨어지기 십상이야." 모처럼 만난 친구 녀석도 코웃음으로 다가온 전 공결정 때문인지 예전과 같지 않다. 선배가 누군지

도 모르는 학부제 속에서 학생들은 과거 학과 중심의 공동체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졌다. 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구호를 외치는지 그건 더 이상 학생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2010년 11월 01일 (다시 현재)
'그때 그들이 외치던 구호가 이거였군. 이런, 빌어먹을 ...'
퇴근하는 길에 잠시 학교에 들른 김동국 대리. 학교는 선거철이라 그런지 한창 분주하기만 하다. 이곳 저곳 살펴보면 김대리는 자신이 대학생일 때와 너무도 비슷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그만 할말을 잃는다. 그러나 평영상을 통한 선거유세, 사이버 투표와 같이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차츰 변화하는 모습에서 그는 작지만 분명 존재하는 희망을 본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학생과 후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심 끌기에 총력 ... 대중적 선거운동에 힘써야

"수업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수업 시작 몇 분전 갑작스런 누군가의 등장 에 학생들은 당황해 한다. 하지만 얼마 뒤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임을 밝히자 학생들은 그제야 "아~"하며 누군지 알겠다는 눈치다.

지난달 29일부터 학생회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총학생회와 야간강좌 총학생회 선거가 오랜만에 경선으로 치러져 학내는 예년보다 많은 선거운동원으로 시끌벅적하다.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에 중문이나 후문 등 곳곳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특히 총학생회 선거진영의 경우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원들의 노력이 더욱 돋보인다.

갑과 을 후보는 각각 '일만이천과 함께 동고동락', 'TTL(Tum To the Left)'를 모토로 학생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강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두 팀 모두 작년엔 유명무실했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선거전략 보완 유지에 어느 때보다 신경쓰고 있다. 또다른 경선자인 야간강좌 총학생회 역시 동국관 M동의 계단이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가득 채워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거운동진이 한창이다.

경선이 되어 자칫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괜한 걱정인듯 싶다. 오히려 중앙도서관 앞에서 한 후보는 상대 후보의 어깨띠가 흘러내린 것을 보고 웃매부새를 고쳐주는 정겨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단독 출마한 타 단과대 역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술대는 주인공이 전면 바뀐 '여인천하'를 등장시켰다. 정·부 후보자 모두 여자인 점에 착안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 여인천하를 이용한 포스터를 제작, 유권자들이 웃으며 학생들에게 2002학년도 달려오도록 만든 공약집을 나눠주고 있다. 나머지 단과대 후보자들도 역시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개인'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어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후보자들의 노력도 모든 학생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생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거는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전교생의 유권자화'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세대 학생회 선거운동의 경우 저녁 때 촛불을 켜서 후보자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대중가요를 개사해 학생회가 일반 학생들과 먼 거리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고려대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랩으로 공약을 말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본교의 후보자들이 선거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을 보낼지 기대해 본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제34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좌담회

‘아래로부터’의 학생회 향한 34번째 발걸음

갑·을 후보, 올바른 학생회 건설 위한 열띤 논의 펼쳐

현 동약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4년 만에 총학생회 선거가 학생운동 진영이 서로 다른 두 후보에 대한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사는 지난 2일 34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갑 후보 정 주진완(국교4)·부 양희창(반도체3)군과 을 후보 정 이재광(철4)·부 이동우(전기4)군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양 후보에서 전망하는 내년 학원자주화투쟁과 노동·통일 정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자 : 이번 34대 총학생회에 입후보하면서 갑 후보가 내건 ‘일만 이천과 함께 동고동락’과 을 후보가 내건 ‘TTL(Turn To the Left)’이라는 모토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갑 후보 : ‘동고동락’은 노동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약의 1만 2천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들까지 포함한 우리 민족

전체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내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총학생회 홈페이지 제작과 기관지인 ‘해우소’의 제작도 구상 중이다.

을 후보 : ‘TTL’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좌파의 정신을 동약에서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여태까지 오른손으로 대변되던 주류사회에서 당당히 여기고 짜여진 틀 속에서 안주해버린 지난 학생회 활동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다.

사회자 : 등록금 투쟁, 제2도서관 공간배치, 일산병원 완공, 총장선거 등과 같은 주요사안들과 관련한 내년 학자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들은.

갑 후보 : 우선 학교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산병원의 무리한 조기개원에 대한 위협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제2도서관이 완공되면 동약 전체 공간이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간소위원회’를 만들어 제2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다. 이는 학내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공간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로 나온 교수에게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우리의 요구를 인정하는 교수를 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을 후보 : 지난 33대 총학생회의 학자투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취했다. 이때문에 각 단과 대나 과학성회에서는 문제점이 총학생회까지 닿을 수 없었다고 본다. 학원자주화 투쟁은 학생들의 현실 앞에 놓인 문제들에 귀 기울이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등록금인상, 공간문제 등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갑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일산병원 문제의 초점을 재단에 맞췄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등록금 삭감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

갑 후보 : 우리는 학자투를 진행하는 중심고리를 일산병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일산병원 건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학자투는 일산병원 문제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며 대학발전위원회 구성도 시도할 것이다.

을 후보 : 우리는 학생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예산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소모임이나 동아리들은 학생회 체계가 아니라 이유론 예산이나 공간에서 많이 배제되어왔다. 총대위원회에서 예산자치기금을 설

정하거나 총학생회비에서 할애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노동계 정세와 지난 6·15 공동선언이후의 현 통일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을 후보 : IMF 이후 국내 자본은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본과 결탁한 현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면 곧바로 당면하게 될 문제이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외면당했다. 당시 사회보험 노조,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됐지만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의 시선을 6.15공동선언으로 돌려 관심 밖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게 한 셈이다.

갑 후보 :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통일의 움직임을 가속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탄압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은 인정한다. 정부는 노동자 탄압과 6·15 공동선언을 괴리 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문제를 학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학내를 비롯해 우리 주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거나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한편, 통일정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난 한해

는 남과 북에게 큰 의미를 갖는 해였다고 본다. 6·15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통일방안들이 제시된 만큼 이것은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을 후보 : 자본이 절대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현 정권이 친미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6·15 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로의 견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갑 후보 : 통일론은 전민족적인 문제이다. 다만 현 정권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당위적 책임을 지고 있다. 공동선언 이후 민간차원에서 통일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 십년 간의 이북에 대한 반공논리가 깨지고 통일의 주체인 민중으로부터 진행되는 교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고 그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사회자 : 갈수록 침체되고 외면당하는 학생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학생회의 존립근거인 ‘대표성’마저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학생회 위기가 도래된 이유가 어떻게 분석하는 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은.

갑 후보 : 계속되는 학재개편과 학부제는 선후배간의 유대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소속감을 떨어뜨렸다. 이는 학생회의 약화

를 불러일으켰고 학생들은 학원의 주체로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가 그 대표성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모임이나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앞서 말한 홈페이지 제작이나 신문발행 그리고 을 후보쪽의 예산자치제 역시 학생회 붕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을 후보 : 주체의 문제나 소통의 부재는 학생회 위기에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 체계의 위기는 전반적인 학원의 상황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 바로 동약이다. 현대사회가 개별화 되어있고 인간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동약 역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학생들 또한 ‘우리’보다는 ‘나’에 길들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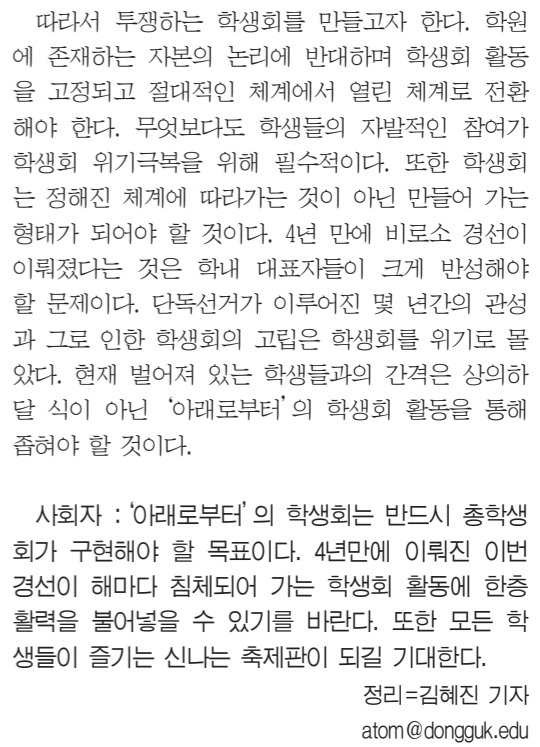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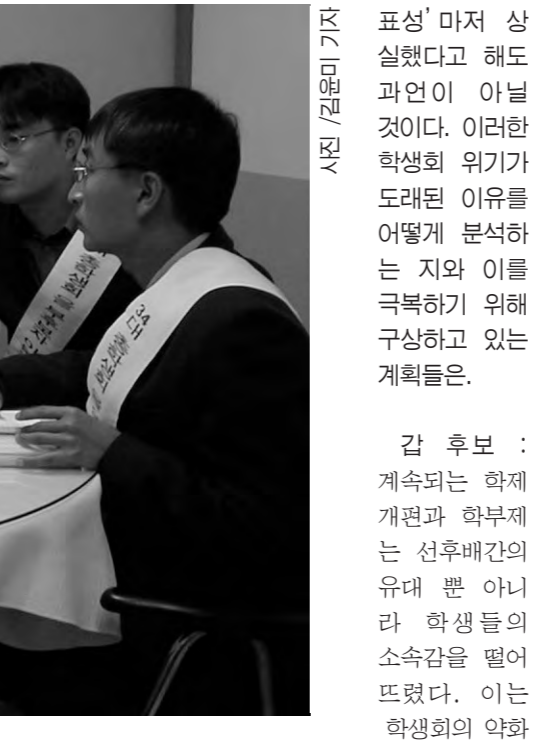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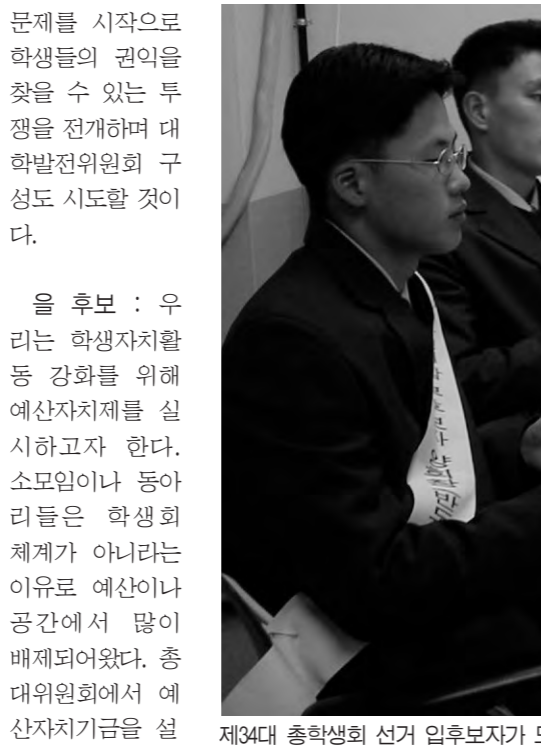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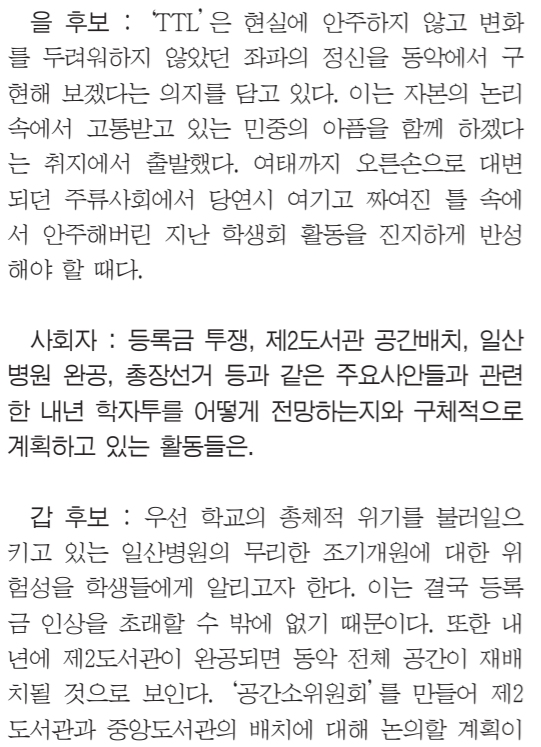


을 후보 : 주체의 문제나 소통의 부재는 학생회 위기에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 체계의 위기는 전반적인 학원의 상황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 바로 동약이다. 현대사회가 개별화 되어있고 인간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동약 역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학생들 또한 ‘우리’보다는 ‘나’에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투쟁하는 학생회를 만들고자 한다. 학원에 존재하는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며 학생회 활동을 고집되고 절대적인 체계에서 열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학생회 위기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학생회는 정해진 체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년 만에 비로소 학생이 이뤄졌다는 것은 학내 대표자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단독선거가 이루어진 몇 년간의 관심과 그로 인한 학생회의 고립은 학생회를 위기로 몰았다. 현재 벌어져 있는 학생들과의 간격은 상의하달 식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학생회 활동을 통해 좁혀야 할 것이다.

사회자 : ‘아래로부터’의 학생회는 반드시 총학생회가 구현해야 할 목표이다. 4년만에 이뤄진 이번 경선이 해마다 침체되어 가는 학생회 활동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즐기는 신나는 축제편이 되길 기대한다.

정리=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제34대 총대의원회 의장 입후보자 - 윤재욱(역교4)

“하나된 호흡으로 투명한 운영할 터”

대의원들의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학생회 강화를 도모하고자 총대의원회 대의원장으로 입후보한 윤재욱(역교4)군을 만나 출마동기와 공약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 모토로 내건 ‘240 대의원과 동고동락’이 의미하는 바는.

= 총대의원회는 240명의 대의원들과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총대의원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단과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 단과대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33대 총대의원회를 평가한다면.

= 일부 대의원들은 총대의원회라는 조직체계를 벗어나 학교 홈페이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수록 총대의원회의 역할이 왜소화 되는 가운데 33대 총대의원회 역시 율한해동안 대의원총회만 겨우 치렀을 뿐이다.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갖기보다는 형식적인 사무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본다.

- 총대의원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 앞으로는 총대의원회도 감사 주체만이 아니라 대의원들을 통한 피감사의 주체가 되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기구 중 하나인 총대의원회 또한 감사를 통해 운영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 감사 일정을 공개하고 대의원들과 집행부 뿐만 아니라 대의원들도 신청만 하면 감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선거 시행 세칙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 현재 선거 시행 세칙은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96년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학생회 체계도 변해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세칙이 남아 있다. 또한 해석의 모호성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분부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오해의 소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e@dongguk.edu

제16대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 정 허고은(중문2)·부 박윤지은(영화TV3)

“주체성 확립과 복지위해 노력할 것”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인 ‘여성들의 사자후, 위풍당당’. 이러한 모토를 내걸고 16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 허고은(중여중문2)양과 부 박윤지은(영화TV3)양을 만나 출마동기와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동기는.

= 정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부당한 일 앞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왔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깨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연대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부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여러 학생들이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자 입후보하게 됐다.

- 여학생들이 연대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구상 중인 것이 있다면.

= 우선 동약의 모든 여학생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여성주간’을 만들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의 축제를 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여러 경험들과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조언을 담은 ‘독립수첩’도 제작할 계획이다.

- 반성폭력 학칙의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 계획은.

= 올해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처리관과 같이 기본적인 것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세칙들이 명확히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건 공개와 같은 시행세칙을 마련해 성폭력 근절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 총여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동약내 여학생 비율이 절반이 되는데도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통로는 총여학생회가 거의 유일하다. 현재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은 미흡하지만 어느 때 보다도 여학생들의 주체성 확립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소나기

차(車)의, 차에 의한, 차를 위한 캠퍼스(?)



△말도 안되지~
△차차차, 차차차.
△나는 차 없는데...
△도서관 앞에 주차 좀 하지 말지.
전용주차장도 아니고.
△외국에선 캠퍼스 내에서 20km이상 속력내면 벌금인데 한국은 60~70km 밟고 큰소리다.
△캠퍼스 플러스는 뭐하지? 우리부터 단속하자.
△우리학교 교수, 교직원 차만해도 주차가능 공간의 두배가 넘어 이 모양이란다.
△어느 후보 공약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교직원, 교수 1인당 1대의 차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문화공간으로 바꾼다던데 진짜일까?
△근데 1인당 1대 기준으로 해도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을까, 학교가 워낙 좁아서...
△학생증 소지자에게 공공교통수단의 무임승차틀!(ex: 독일 다름슈타트)
△동국 주차장...아니 중앙선도 있으니 통일고속도로라 해야겠군.
△꼭 주차금지지역에 주차하는 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건지...
△면허시험 연습장 그림도 그려줘~
△차를 밟고 다녀야 할 상황이 올까?
△"차를 다 가져라!"
△세상 차 우리학교로 다 모여라!
△학생이 무슨 차야! 걸어다녀라.
△다들 쉽게 차(들)! 차(서)!차(버려!!)
△서울캠 정거차 준비를 좀더 올립니다.
하루에 500원이라고 그러던데.
△차를 위한 학교냐?
이제 학생이 동약이 주인이 되자!
△잡아서 다닙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건 어떤지...
△주차빌딩은 어떤지?
△내내 차량속도 너무 빠르다.
20km가 훨씬 넘는 것 같다.
△예전에 '동국대 차 없는 날'이 있어서 총장님도 그 날은 걸어왔는데...
△동국관 앞: 처음엔 횡단보도. 다음엔 중앙선. 남은 건 신호등.
△미안하다 학생들이!
다음부터 내 벤치 안 가져올게!
△학교엔 인간이 차보다 덜 중요한 말인가.
△예쁜 차만 주차시켜요.

오수기

남 기 협 (인문대 사체2)

어린 나이로 프로의 자리에 오른 골퍼

"홀을 향한 한타 한타에 제 꿈을 실어요"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운동이 골프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멋지게 승리를 일궈 내 이가 있다.
지난달 10, 11일 양일 간 치러진 KTF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본교 경주캠 남기협(사체2)군은 프로 골퍼라는 새로운 위치에서 필드에 서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골프를 시작해 중학교에 와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결심했다는 그는 가족 모두가 골프를 치기에 골프와의 인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지금도 골퍼로 활약하는 그의 형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멋진 동반자라고 한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의 후원 덕분이에요. 누구보다 야단도 많이치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죠."

골프는 움직이지 않는 볼을 치는 스포츠로 마치 정지된 자신을 쳐올리듯 목표한 홀을 향해 한타씩 나아가는 것이 매력이라고 한다. 또한 그 매력 때문에 골프가 없는 자신의 삶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많았지만 한번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골프에 더 빠져들었죠." 각종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기대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실망도 많았다. 그러나 남군은 차근차근 감을 익혀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대비했다고 한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의 후원 덕분이에요. 누구보다 야단도 많이치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죠."



생각해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했던 위치에 도달해 있겠죠."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는 그의 자세가 20대 후반에도 따기 어렵다는 프로 골퍼의 자리까지 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라며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남기협 군. 새벽 라운드를 뛰며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에게서 PGA 무대를 누비고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합민회 기자
lilith@mail.dongguk.ac.kr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선거참여, 권익실현의 길

2002년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세와 호소가 동양 곳곳에서 들려오는 시기이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중·고등학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선거를 경험하는 터라, 약간의 기대와 함께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10월 29일자 동대신문의 설문 조사를 접한 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저조한 학생들의 관심도 때문이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나 역시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우리가 누려야 할 권익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뜻을 같이하는 대다수가 힘을 실어 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회는 이러한 역할을 가장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생회가 올바른 일에 더욱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조금은 학생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혀보자는 것이다.

는 것이다.
서울캠은 11월 13일부터 투표를 시작한다. 우리의 입과 손, 발이 되어줄 사람을 뽑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우리 권익의 바탕이 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은주 (문과대1)

스쿨버스 예절 지켜야

요즘 들어 경주캠버스 학교 홈페이지에 스쿨버스에 관한 건의 사항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집이 남포동인데 스쿨버스를 교대까지 밖에 운영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니 부산역까지만이라도 운행했으면 한다. 5시 차를 타기 위해 30분 먼저 가도 자리가 없다는 등의 글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은 좌석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전부터 50분에 차표를 받고 인원을 체크한 후 정차가 되면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 온 학생이 다른 친구의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며 차안에 가방을 놔둔 채 밖에서 놀다 출발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들 때문에 차는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학생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스쿨버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차를 타다보면 속이 불편할 때가 종종

는 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버스 내에서 자극적인 냄새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피해가 다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된다.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스쿨버스를 타는 인원수의 변동이 심해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 이유는 자취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승차표를 빌려서 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측은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학생들과 기사 아저씨들이 다 함께 노력한다면 쾌적하고도 좋은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선 (자연과학대1)

'외모' 중시하는 현 사회

그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외모도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하여 사람의 힘으로 나의 마른 가슴이나 앙상한 손가락까지 열렬히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 다.
그처럼 육체의 시대에는 사적인 연애를 비롯하여 공적인 사회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도 외모나 몸매를 따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여자라면 누구나 한뼘쯤 가지고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신선한 내용 담아야

문화면 매체비평의 뮤직비디오 편에서는 드라마틱한 뮤직비디오가 범람하는 흐름에서 고전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살아있는 연극을 영상으로 승화시켜 만든 이기찬의 뮤직 비디오를 다루어 산뜻한 느낌을 주었다.

이와는 달리 임권택 감독 인터뷰는 그 의도는 좋아 보였으나 인터뷰 내용이 타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질문 내용도 민족 문화에 국한되어 기자가 서두에 제시한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인터뷰가 부족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대중적인 소재도 좋으나 너무 대중적인 것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흔한 소재라도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동대신문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길 바란다.

손동일 (법정대 법2)



(제1329호 10월 29일자)

소비문화 되새겨준 기사

달하나 천강에의 '소비문화 바로잡기'라는 기사는 슬값과 유희비 위주의 소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 반성하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대학생 모두를 '지적 호기심에 대한 열정에서 걸모습 꾸미기로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성급하다. 대학생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적인 대학생 소비문화가 현 대학사회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우리는 냉정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에너지와 물질적인 것을 소비했다면 한다.

조현광 (공과대1)

시장골목 국밥집

김현 (문과대 문창2)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밤길 시장골목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모락모락 따스한 기운이 국밥 한 그릇 먹어볼까, 험한 샷시문을 열게 한다.
국밥은 고깃국에 밥을 한 것이 전부다 아니라
시장골목 사람들의 마음을 뜨끈하게 덮어주는 온기가 있다.
좌판을 치우고 늦은 저녁을 먹는 시장골목 사람들의 꿈꿨던 언 벅속으로 들어가
꽃장등에 밤이 술술술술, 찬바람에 전이 빠진 몸을 녹여준다.
매운 고추와 깍두기가 더해져 입맛을 돋우고
남은 한 술갈까지 싹싹 비워낸 얼굴에
예민함의 담백한 정이 투명한 웃음으로 피어난다.
국밥엔 한 끼를 책임지는 든든함만이 아니라
시장 골목 구석구석 쌓인 함박눈 같은 포근함이 있다.
삼선님 동안 쉬지 않고 국밥의 열기를 이겨낸
뚝배기 같은 여자, 뚝뚝이 활법
오늘도 아낌없이 국밥을 말아낸다.



동약광장

목격길

축하합니다

△호철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근우야, 혜영아! 2001년 부럽당, 축하해.
△진선부 2001 축하.
△두연양&대근군 100일 축하해! 너희들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래.
-J&S&I
△도라에몽의 대학원 합격을 축하합니다.
-몽고/대자연
△11월 10일 우리의 시니컬! 생일 축하해.
-for who
△용선아 여자친구 생일 거 축하해~
-성후니
△혜라 선배 2001 축하해! 10/31
△인배♡윤정 500일 추가해요.
△국고 00학번 승호, 자원이 생일 축하한다. 열심히 살자!
-진숙
△재입아 이모된 거 축하해 조카 잘 키워라.
-혜선, 열경
△11월 6일 장정아, 생일 축하한다.
-매력남들(배,성,홍)
△11월 4일 인선이 생일 축하해!!
-세리와 다미
△친구야,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난 거 축하해. 앞으로는 멋진 인생을 살아봐.
△11월 1일, 20번째 생일 축하해~
-F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정 and 강철경영 집행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977s
△선영아~! 밥같이 먹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쳐로
△Fearless Dawn 제10회 정기공연 열심히 하셨습니다.
-67기
△추운대 반바지 입고 오느라 수고했다! 이덕영~
△기영이형, 학회지 '경쟁 Bulletin'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많은 도움 준 편집부 위원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GRAY
△호찬아! 추겨 산행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S.Y
△철학과 운위, 집행부들 디제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학과 학생일동
△정보문화축전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전국장
△주진우·양희창 선거운동본부 운동원들 모두 수고하시고 즐겁게 합시다.

열심히합시다

△14기 동국대장님 열심히 하세요.
△경영대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골
△34대 자주적 총학생회 건설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 열심히 합시다!
-김영도
△사과대 노래패 열음 10주년 공연 아자! 아자! 아자!
-결

△사과대 선거운동원들 열심히 하세요.
△무역누리제 마당극 준비하는 모든 이들!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아자!
△명가야 열심히 돈 써라.
△드디어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아빠 재선 선배 우리의 희망!! 시험 잘 보세요.
-백골단
△단풍연 정기공연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보여주세요.
△이는 사람이랑, 같은 소속이라고 당신을 지지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소수정예 post 멤버들, (점, 해, 빠, 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도록
-무가리
△11월 7일 합합페스티벌 대박내자! AJAX Fighting!
-실버타운

그리고...

△근우야 감기 빨리 나아!
△수민아, 힘내 그리고 사랑해.
△장선애~! 힘내
-y
△덕영아, 희망을 가져라!
△민홍시험 END. -동국대학교 법대생들
△성서정 잘! 사회 본 오빠 멋있었어요.
-기석
△11월7일 가장터공연 살사맨스와 살사 12~13시 계산관 앞마당에서! 많은 참가 바랍니다~
-여학생실짱~
△8318 나타나라! 네 얼굴이 금금하다.
-재승
△정훈오빠, 잘 지내죠? 언제 함 봐요.

온방길

축하합니다

△수선아, 21번째 생일 축하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11월 9일 태우영감탱이 생일 추가추가.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세요~
△연탄연씨와 은숙양의 100일을 추가해요~
-군에서 부디 건강하세요~
-희가
△10월 31일 지났지만 소원이 생일 축하♡
'11월 4일' 목이♡영미 200일두 축하. '11월 5일' 성곤이 생일두 추가추가~
-동국베드민턴
△생화학과 재원이! 생일 축하해. -은주
△경민아(해제지)(국악과 4학년) 생일축하해! 생일파티 거하게 해!! 기다릴게요~
-Ju
△현리랑 형석이 700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주년 축하해용~
-장규열
△1학기 패대하느라 힘들었잖어, 2학기 때는 기자하느라 힘들겠네. 추가하구 열심히 해, 사랑해 문경아.
△자연과학대 숙희의 생일입니다. 숙희야, 생일 축하해. 모든 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97선배
△뽕! 생일 축하해. 11월 4일 모두모두 축하해 주세용***
-TG

△한울회!! 11월 3일 한울제! 11월 4일 졸·송 축하해요.
△불동과 점은정,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국사학과 4학년 여러분 사은회 무사히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스킨
△인숙아~늦었지만 너의 20번째 생일 정말 축하해~
-올해 멋진! 남자 친구 생일길 바랄게.
-미라, 현주
△자 종호 생일 추가.
-불꽃 남자
△재원이 언니! 1일 생일 축하해요. 언니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불교야동학과 집행부들! 학술제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불·동
△졸업연주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악과 forever
-국악과 일동
△인보이스인들 중간고사 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보이스 팬클럽
△다 불은 졸업시험 떨어져서 3차까지 치신 경영학과 4학년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4학년 H군
△부영아, 방 청소하느라 고생 많았어.
-오로라 공주

열심히합시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요즘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 조금만 힘내라. Fighting
-Bear 공시령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그리고...

△우방 대학원 원서 넣고 면접준비 잘하소!
△You-Loss 10주년 정기공연 "대박 프로젝트" 꼭바로 해.
△국동아 꼭 합격하거라!
-세훈
△최강 동국간호 '98!!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설패대 줄린 '99
△혜정아, 사랑해.
-CJK
△동국한의본1 본초 실습시험을 마쳤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불교아동학과 명칭변경

관점1

관점2

내년 실시될 '학과 명칭변경'과 관련해 불교아동학과를 없애고 일반 유아교육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초기 학교측의 주장과 대립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불교아동학과 문제와 관련한 석림회의 입장문 불교유아교육학과와 신설 혹은 그것이 안된다면 불교아동학과가 존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불교'라는 단어가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현대의 다종교 사회에서 서양종교에 밀려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지 않은 데 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불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의 각 사찰과 암자, 불교단체에서는 불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이란 본래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 발생한 학문이다. 그래서 전국 불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불교적 교육을 받은 유치원 교사나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한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가 폐지되고 일반 유아교육학과가 신설된다면 불교적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이나,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교 인재 교육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불교 어린이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며, 불교의 미래도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주신호 (불문대 선3)

불교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를 그리도 힘들게 만든 것은 유아교육학과 과 명칭이 개정된다는 사실이었다.

불교 아동학과는 개설 당시 학교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양질의 전문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에 특정 종교를 붙일 수 없다는 현행법상 우리과는 일반화과인 아동학과에 불교를 붙여 전문포교사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과에서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모두가 받을 수 없었기에 교수님을 비롯한 총동창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100%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학과를 승인 받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를 뺀 유아교육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불교 포교라는 특수성을 뺀 유아교육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취업의 길 제시 등
해결책이 요구된다.

모두가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견대립으로 꽤 혼란스러웠었고 이제야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보였다. 그것은 불교아동학과나 불교유아교육과 중 한 과 만이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교아동이 남았을 경우 100%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지금껏 배워왔던 것을 고수하고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의 길이 지원만이 아니라 종단에서도 우리들이 좀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 힘을 써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이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유아를 대상으로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길을 좀더 열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민주 (불문대 불교아동3)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열린글터

특별기고 - 21세기 국제사회의 산림자원에 대해

“산림자원은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다”

현세대, 후손 위한 환경산업으로 나무 심는 습관 길러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목재 및 연료 공급원으로써 간주되었던 산림자원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흡수 저장하는 자연상태의 공기정화기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산림자원이 환경보전 문제와 연계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지구 열대림 보고지역인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근거를 두고 있다.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유엔정부기구(IG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 지역회의에서 산림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적 컨센서스 모색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지구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간의 입장 차이로 상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산림부문의 해결 없이는 지구

환경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년 2001년 5월 유엔산림포럼이 유엔경제사회 이사회(ECOSOC) 산하의 상설기구로 발족돼 향후 5년 동안 산림논의를 지속시켜 나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998년 유엔총회에서는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할 바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동안의 환경관련 추진 활동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Rio+10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구상의 산림면적은 인류가 농경생활을 영위하기 이전에는 약 62억ha였지만 2000년을 기준으로 34억ha로서 절반의 산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산림의 감소현상은 특히 유전자원의 보고지역인 열대림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반 면적을 능가하는 15백만ha에 해당되는 산림이 매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의 파괴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변화

시켜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저하시켜 지구온난화현상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심각한 산림파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자연상태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산림자원을 확대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논의는 기후 변화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산림을 자연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할 바 있다. 최근 들어 조림녹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은 조림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탄소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국제적으로 목수수, 콩과 같은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간 거래가 가능하다.

세계적 기업인 GM사, 푸조, 토요타 자동차 등의 회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

에 1천 만불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조림사업에 이미 착수한 바 있다.

2001년도 산림관련 연구보고서는 이산화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야생동물 보호 등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환경적 가치를 총 50조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액(GDP)의 9.7%를 차지하고, 임산물 생산액의 29배에 해당되며, 국민 1인당 106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에 해당된다.

19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용량은 13,798천 톤으로 총 배출량 1억917만톤 중 12.6%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의 산림자원은 목재생산의 틀에서 벗어나 이산화탄소 흡수 저장고, 생물 다양성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산업으로써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확실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숲에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강호덕 (산림지원학)교수

개원 12주년 기획 광고 이제 병원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으로 오십시오

한·양방 협진 / 최우수 의료진 / 첨단의료시설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한인고대학 부속 **이민이민이민** 세계 제일을 추구 합니다

한국불교 1천6백년, 민족의 등대지기 1백년, '동국'의 향기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불교 손길이 있듯 중생이 아프면 불교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 맨 앞에 동국대학교 의료진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진은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경주한방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분당한방병원, LA로얄한방병원등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서울 강남 중심지에 또 하나의 역사 - 강남한방병원이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제일의 한방병원을 향해 서울시민의 사랑과 임원, 외래환자, 2천만 불자의 사랑을 받으며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인간화·첨단화의 바탕위에 한방과 양방이 어우러진 21세기 열린 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강남한방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진료과목안내

진료과	진료교수	전문진료분야	클리닉/검사
내과	1 정지천	상임(중풍, 당뇨, 전립선비대)	상임 내상 예방의학
	2 임성우	신장병(중풍, 당뇨병, 전립선비대), 순환기질환(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소화기질환(위장병, 간염, 변비, 설사), 호흡기질환(간기, 기관지염, 천식)	
	3 이원철	경년기장애, 수족냉증, 월경병, 불임증, 골관절, 자궁수술 후유증, 유산, 산후통, 성기능 장애, 여성 건강상담, 여드름 및 비만	
부인과	김종일	경년기 장애, 수족냉증, 월경병, 불임증, 골관절, 자궁수술 후유증, 유산, 산후통, 성기능 장애, 여성 건강상담, 여드름 및 비만	경년기 불임
소아과	최인환	허위약, 자선장, 만성기침, 소아천식, 학생건강, 아노증	성장
가정의학과	배재익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종합검진센터
진단영상학과	정유미	CT, X-RAY, 초음파, 특수촬영	

한·양방 종합검진센터

- 종합건강검진
- 기본, 일반, 정밀검진
- 교직원검진
- 예비부부검진
- 성인병건강검진
- 공무원검진
- 교직원검진
- 직장인검진
- 채용신체검사

찾아오시는 길

◇좌석버스 : 37, 64, 64-1, 731, 72, 933
 ◇일반버스 : 38-2, 56-2, 62-1, 66, 117, 141-2, 212
 ◇지하철 : 7호선 학동역 7번출구(도보1분)
 2호선 역삼역 7번출구 38-2 승차(5분)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 38-2 승차(3분)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Dongguk Univ. Gangnam Oriental Hospital

진료비 감면 : 스님, 본대학 교직원, 교직원가족, 재학생, 동문, 불교신도 진료비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 02)3416-9700, 접수 : 3416-9725~6, 입원실 : 3416-9733

동국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양질의 의료시혜와 친절한 간호로 봉사하여, 서로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조국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달하나 천강에

가을 되찾기



윤성이
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과 같이 우리 가을을 표현한 말이 상당히 많으며 그 내면에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상징하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가을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좋은 가을이 짧아진다는 것은 물론 오해에서 비롯되지만 이러한 오해에서부터 요즘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게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변화가 일정한 정규분포 하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그 편차부분을 뜻하는 이상기후 영역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온도 상승에 따라 범위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학계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지난 100년간 평균 섭씨 0.5도에서 1도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고, 최근 서울이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온도변화 폭이 실제로 크게 나타난 것 역시 기상청 데이터에서 확인되었다.

가을이 짧아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느끼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분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그 중에서도 가을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생활해 보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자연의 은혜로움을 새겨 가을을 지켜내 자손 만대에 물려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고 느끼듯 진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제부터 가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자.

가능한 한 승용차의 이용을 절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전기 한 등을 덜 켜고, 수도 물을 아껴 쓴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고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이를 통해 환경을 살릴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가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가을하늘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환경 동국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만2천 동국인 모두가 앞서 말한 최소한의 실천방안에 나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본다.

평화촌 울타리에서 마음의 벽 허물기

화해분위기 만드는 자발적 움직임 ... 축소된 행사규모 아쉬워

1999년 12월31일, 세계 인류는 세계 각국에 거행된 뉴 밀라니엄 축하 쇼를 TV로 보면서 평화가 가득한 21세기를 기대하였다. 더욱이 냉전 체제가 와해된 상태여서 그 기대는 다른 어떤 때보다 컸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21세기 벽두부터 9.11 뉴욕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있다.

전세계는 전쟁과 테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21세기는 더욱 파괴적이고 잔혹한 전쟁으로 인류사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인류에게 평화는 '사치품'일까. 우리는 그저 전쟁을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9.11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와 화해를 생각하며 문명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평화의 외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 냉전 상태로 남은 한반도의 관문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런 취지 아래,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 동안 평화촌(Peace Camp) 행사가 열렸다.

이번 '평화촌' 행사는 남북한 화해와 세계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이 행사는 본래 평화 음악회, 평화 캠프 운동,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하는 세계 작가 세미나 등 상당히 큰 규모로 계획되었다.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 수상자 5명도 참가하여 각 '평화 캠프'의 존장을 맞기로 하였었고, 북한에서도 작가를 파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9.11 뉴욕 테러 사건 이후, 북한이 준 전시 상태로 돌입하면서, 이번 '평화촌' 활동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하였다. 관문점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된 모든 '평화촌' 활동은 거행될 수 없었다. 다만,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개최하는 세미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초청된 외국 작가들은 독일, 칠레, 마케도니아, 프랑스, 노르웨이, 타이완, 중국, 일본 등 분단국이나 분쟁 상태에 있는 지역 또는 세계 분쟁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다. 작가들은 '평화와 화해'라는 대 주제 하에, 각각 소재를 달리하는 문장을 발표하며, 인류가

처한 상황과 그 대안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그를 집약하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테러도 반대하지만 반테러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아편임을 작가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할 때까지 작가의 눈으로 이를 감시하고 표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모국어를 가지고 행하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행위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공동가치를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한다.

벽은 외부의 비바람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벽은 서로를 가로막고 가지를 단순하게 만든다. 이번 '평화촌' 행사는 그 벽을 허무는 작업이었다.

김영철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탈북동포 우리가 도와요"

캄보디아, 베트남에 45일간 맨발로 걸어 지난 해 초 귀순한 이(李) 할머니(61). 서울에 홀로 도착한 그녀를 먼저 맞이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주는 강한 두려움이었다. 다른 이탈주민들처럼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해 들어간 국가교육기관에서도 한동안 그녀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두렵지 않았다. 근처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에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왔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고 함께 생활하니까."

지난 2일 YWCA 강당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들이 모두 모여 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와 교육의 체계성을 갖추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귀순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내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각 지역 민간단체들이 모인 자리.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대회'가 그것이다.

봉사프로그램과 봉사인력 문제의 대안을 찾는 세미나와 각 단체의 봉사·교육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동시에 명동 거리에서 관련자료의 야외 전시회도 가졌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각 단체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대학생들의 1:1 청소년 방문교육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영상 등이 발표된 시간은 더욱 뜻깊었다. 다른 민간단체들이 실시했던 프로그램의 장점을 파악해 앞으로의 봉사·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주민에게는 민간단체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취업문제가 그것이다. 때문에 대회 여기저기에서 현실적인 취업문제에 대한 이탈주민들의 격정적인 목소리가 자주 터져 나왔다.

이탈주민을 위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면에서 민간단체는 이탈주민을 위한 봉사·교육에 체계성을 갖추는 동시에 이탈주민의 '역할 찾기'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자아인식 램프 전시회

동그라미 사진전



서울캠 사진예술연구회 '동그라미'가 서른 두번째 정기전시회를 연다. 매년 가을마다 전시회를 가져 온 동그라미는 올해에도 흑백 위주의 사진 35점을 선보인다. 우리 주변의 풍경을 특별한 시선으로 담은 회원들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90주년 기념문화관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011-9046-5608(남현정)

힙합 페스티벌



서울캠 힙합 동아리 'AJAX'가 2001 전국 대학 힙합 페스티벌을 펼친다. 이번 페스티벌은 본교를 비롯한 총 6개 대학의 힙합동아리와 프로 힙합 댄스팀 고릴라, 힙합가수 HI-PLUS MIN이 함께 한다. AJAX의 한층 성숙해진 춤 솜씨를 두루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7일 오후 6시. 만해광장에서. 문의 011-9914-5029(변인욱)

동국음악회 콘서트



경주캠 음악 동아리 '동국 음악회'가 추계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합창곡 'Summer Night'를 시작으로 가을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을 선정,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의 아쉬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동음인들과 함께 하는 느낌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는 7일 오후 6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54)770-2776

또 다른 이야기 전시회

경주캠 만화 동아리 '또 다른 이야기'에서 열 번째 정기 전시회를 가진다. 일상의 모습을 담은 이번 작품전은 회원들의 개인 작품 전시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도 상영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문의 053)770-2799

7일	바스타드 (11시)
8일	오! 나의 여신님 (10시), 카우보이 비밥 (2시)
9일	은하철도 999, 사요나라 은하철도999 (11시부터)

문화기획

2020년 한글 고등학교 제2외국어 중간고사

답 문단을
20세기말 한글로 작문하셔.

님들아, 하이염!
오늘 무슨 일덜 하셨나염?
저는 학교서 칭구덜하고
정부더 하고 간식도 머겨쨌요.
사실은염. 잠도 잤져염.
님들은 그럼 땃찌.

답 안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등을 하셨습니까?
.
.
.

지금은 웃어버리는 유머겠지만
사이버 속에서 떠도는
한글 파괴 현상을 보다보면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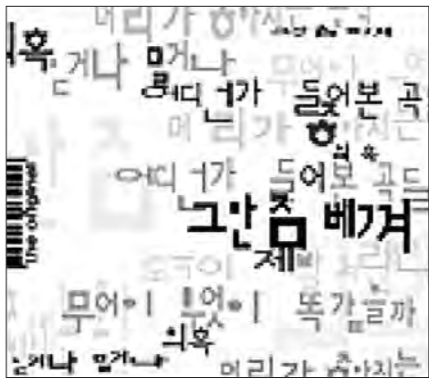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체비평

음반 편

디 오리지널

“외국 음악을 들으며
우리 가요를 흥얼거린다?!”



표절논란을 일으켰던 국내가요의 팝 원곡을 모은 앨범 '디 오리지널(The Original)'.

대중적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표절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악관계자들은 마음 속으로 놀랄 때가 많다. 어떤 가요가

좋다고 말하면 거의 틀림없이 상대방이 '그 곡, 팝 어떤 곡하고 비슷하지 않아?'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곡 무슨 팝송 베껴대?' 하고 말하는 경우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좋다고 말한 것이 참피해진다.

표절(의혹)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관심을 모은 곡은 정말로 많다. 플라의 '날개 없는 천사'가 표절했다는 곡으로 언급된 새기의 'Oh Carolina'는 유명 팝송으로 떠올랐고 H.O.T의 '열맞춰' 덕분에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앨범이 순식간에 2만장이 팔렸다.

최근 나인포우라는 이름의 제작사에서 만든 '디 오리지널(The Original)'은 국내 가요가 그간 베낀 것으로 알려진 팝송들을 엮은 앨범이다. 커버에 쓰인 말 가운데

'그만 좀 베껴'란 표현이 음반의 제작의도를 함축한다. 이름을 날리는 한 가수 겸 프로듀서의 곡이 R 켈리와 너무 흡사하다거나, 어떤 유명 여가수의 노래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곡과 똑같다거나 하는 때로는 얘기들을 '용감하게' 음반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당연히 앨범이 주는 친화력(?)은 보통이 아니다. 곡목과 가수를 몰라도 당장 '굉장히 귀에 익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며 더러는 아예 특정 가요를 지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앨범이 그래서 쿼츠처럼 재미있다.

히트만 하면 나중 우리 가요의 작곡자는 '멜로디가 다르다'며 표절의혹에서 쉽게 벗어나곤 한다. 허나 멜로디를 살짝 바꾸었다고 담는 그릇인 코드가 달라지는가.

코드 전개를 베끼고, 편곡 스타일을 도용하고, 심지어 창법까지 본뜬다.

문제는 '작곡가의 양심'이다. 그런데 그것을 종용하는 세력은 바로 히트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일부 '탐욕의 제작자들'이다. 곡을 쓰고 음반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그들만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똑같이 '관객'이나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스타의 팬들은 철저히 그 스타의 음악을 보호한다. 어떤 때는 스타의 방해막이를 한다. 누군가 표절을 들먹이면 가차없이 그 사람에게 집중타를 날린다. 지난 1996년을 전후해 팬클럽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표절논란이 수그러들었다.

주지하다시피 표절은 원작자와 표절의

혹 당사자간의 문제로 근절의 제도화가 어렵다.

남들이 표절이라고 해도 원작자가 그런 것 같지 않다면 그만이고,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원작자가 단 한마디라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 법정으로 가야 한다. 결국은 작곡가, 제작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중음악이 창작문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 민감해야 한다.

'디 오리지널' 수록곡을 들으면서 생각한다. '성공하면 모든 게 묻히는구나.' 성공 이데올로기가 양심을 살육하는 현장. 우리 가요계를 위해서라도 이 앨범은 시리즈로 나와야 한다. 의혹을 산 노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인터넷바다, '그물'치고 수영할 순 없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에 넘쳐나는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인터넷 콘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내놓은 제도이다.

현재 정통부는 성행위, 성윤리 왜곡, 전통적 가족윤리 훼손, 저속한 언어남용, 도박, 청소년 불건전 교제 조장 행위 등의 등급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 나아가 정보 제공자가 등급심의기준에 따라 자기가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PC방이나 학교, 도서관 등에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선정적인 사이트는 접속부터 제한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반론을 펴고 있다. 첫째, 정보의 유해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둘째, 과연 누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스스로 유해하다고 판단하려 하겠는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운영기관인 정보통신위원회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뜻을 밝힌 정부 주도의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됨을 안시, 각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부가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상정했을 때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해 왔다. 그간 정부는 법안을 세 번 바꾸었으며 지난해 국회 상임위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남겨둔 채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 4월, 정보통신부는 자신들의 권한인 시행령을 통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켰으며 마침내 지난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실시되었다.

자율과 강제 사이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피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끼는 것'이다. 전국의 PC

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강제된 것이다. 이 기술적인 등급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인터넷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다. 둘째, 최근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범배포하고 있는 피스용 차단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는 기본적(default)으로 차단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뿐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차단되지 않으려면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2개의 선택만을 강제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보호 아닌 검열일 뿐

물론 지금 인터넷에는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 여성과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많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 존재한다. 즉, 그것은 현실 사회의 문제이며 인터넷이나 매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 사회의 법과 제도가 여성과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와 노동착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가 '예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그치면 된다는 매체 규제 위주의 발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검열을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다.

인터넷은 공공력이 과거와 같이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 명분상 '자율적'이고 시장과 결탁하는, 새로운 검열 방식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제 불법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다.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에도 정보통신위원회와 인터넷 등급 표시를 거부하고 정보통신위원회와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해야만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기술적 담론의 허구를 떨치고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해 본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해외 사례 거울삼기

세계 각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불온'과 '유해'의 정보문제를 떠나 '불법' 정보만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 환경은 '천국'과 다름없다. 그들은 정부 차원의 법적인 통제를 떠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기술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정된 3개의 법안도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미국은 '통신품위법' 논쟁을 통해 '불법성'보다 더 모호하고 광범위한 '유해성'의 기준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일본에서도 '불건전 정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아니라 사법 당국에서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ICLA'와 같은 비영리 민간기구에서 인터넷 질서를 담당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규제 모델을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객관적 자료조차 부족한 상태다.

이제 인터넷 상의 모든 웹 문서에 등급표시가 매겨지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과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최근 벌이고 있는 합리적인 행동들을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사이버 검열

꿈어? 뚫어!

'날의 요정 세일러 문'은 세계정복을 꿈꾸는 악당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14살 소녀를 그린 일본만화이다. 세일러 문은 변신 때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내뱉고 언제나 어김없이 악을 물리쳐 지구를 지켜낸다.

여기 '세일러 문'과 같은 사람들이 또다른 정의의 위해 모였다. 인터넷의 모든 내용을 규제, 검열해 인터넷 정복을 꿈꾸는 정보통신부에 맞서 정의의 이름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고 나선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바로 그들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동성애인권연대 등 총 2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60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농성은 현재 동덕여대 총학생회 김경미 회장이나 홈페이지에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올려 표현의 자유를 이슈화시킨 김인규 교사가 참여해 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대변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이 발표된 지난 1일, 시민들에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당함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결의대회 및 문화공연을 펼쳤다. 먼저 평화인권연

대의 홍창욱 씨가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동성애인권연대 고승우 씨가 '세일러문'과 '이반스티 닷컴'을 예로 들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풍물패 '살판'의 길놀이 마당으로 문화공연이 시작됐다. 징, 판소리, 북, 장구로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선보인 풍물패는 '뚫어 뚫어 막힌 입구멍, 귀구멍을 뚫어'라고 외치며 온갖 검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중가수 연영성 씨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제, 네가 시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대로 내가 다할 줄 알아'란 특이한 곡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전선으로 자신의 몸을 감아 검열이란 울가미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매는지를 보여준 행위예술가 지경 씨의 퍼포먼스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 행사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해 주었다.

현재 정부가 폐쇄한 사이트는 무려 10만 8천 여건에 달한다. 한국 최초의 동성애 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를 반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노스쿨'은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라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폐쇄조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운영자도 모르게 사전공고 없이 폐쇄돼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세일러 문은 악당들과 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구를 지킬 뿐이다. 그렇기에 최근 공동행동이 정부에 맞서 벌이고 있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운동'도 꼭 실현되리라. 아울러 이전 바로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함께해야 할 때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인간다움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동 5번에 거주하는 22살의 청년입니다. ...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저희들의 1일 15시간 작업시간을 1일 10~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 인간으로서 '최소한

의 요구'입니다." -1969년 미발송된 편지 중에서 ▲얼마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저임금계층인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IMF이후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인력을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대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했

기 때문이다. 즉, 오갈 데 없는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극도의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저임금계층이 확대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근무조건 또한 열악하다. 학대만 보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년 아주머니와 수위아저씨들은 한달 노동량에 비해 그 임금이 아주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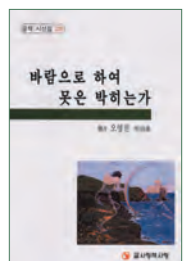
또한 생협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식당아주머니들 역시 하루 총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 이러한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합결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1970년 분신항거로 이 땅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전태일 열사. 얼마 후

면 전태일 열사 3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 온몸을 화산 불길 속에서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그의 외침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건 왜일까. 노동이 곧 생존권과 연결된 지금, 무릇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한낱 방편'이러던 문구를 떠올려 본다.

김은선 편집장
ppuzic@dongguk.edu

세소식

바람으로 하여 못은 박히는가



본고 오영진(일어일문학) 교수의 목소리를 담은 세 번째 시집. 솔직하고 재미있는 표현과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시집은 장년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남성의 삶에서 한 번쯤 소망해 볼만한 이야기, 그리고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을 다양한 소재로 담아내고 있다.

가슴에 폭탄을 품은 여자들



희곡작가이며, 부산일보사 상임논설위원이기도 한 김숙현 교수가 칼럼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동서고금의 명현(名賢), 성철(聖哲), 문호(文豪)들의 집언(箴言), 명언, 주장은 물론 문학 및 철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칼럼들이 특유의 은유하고 은근한 표현들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하늘아래 문밖에서



연극집단 반(反)이 늦가을을 풍성하게 해줄 무대에 관객을 초대한다. 독일의 젊은 작가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문밖에서'를 원작으로 하는 이번 공연은 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통해 인간 실존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차.이.다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언어, 상상할 수 없는 빠른 템포의 사건 전개로 새로운 형식의 멜로드라마를 표방한 연극이 무대에 올

려진다.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남녀의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를 격렬한 전개로 풀어내는 이번 연극은 일상 속에서 성(性)과 사랑의 함수관계들을 리얼하게 풀어낸다. 내년 1월 6일까지, 7시 30분(화~금)/ 4시 30분·7시 30분(토)/ 3시·6시(일), 비랑골소극장에서. 문의 764-8761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



또 한번 부산이 우리를 부른다. 매년 어김없이 영화 관객을 즐겁게 해 주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여섯 돌을 맞

았다.

개막작인 배창호 감독의 '흑수선'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부산의 14개 스크린에서 60개국 203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감독과의 대화, 독립영화 세미나 등 특별 이벤트는 영화제의 재미를 더한다.

공식사이트 http://www.piff.org 오는 17일까지. 문의 051)256-7325

광고 Festival



한국 CPE의 거장 윤석태 교수의 광고 작품을 필두로 해외 유명 광고들이 경주에서 상영된다. 윤교수가 재직 중이던 경주대에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에게 광고의 매력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전문가들에게 국내의 훌륭한 광고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가의 강연회와 광고제작 과정을 담은 스토리 보드 등은 참가자들에게 광고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불국사문화회관에서. 문의 054)748-5551

윤형근 & 심문섭 전

한국 현대미술의 일면을 대표하는 선·후배 두 작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전시회는 아트선재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국 현대미술계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고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전시불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이 단이한 먹이 아닌 오일 페인트로, 그리고 정형·비정형의 설치물로 옮겨오며 현대적인 감각과 어울어 지는 모습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달 25일까지. 아트선재미술관에서(월요일 휴관). 문의 054)745-7075

해외대학가는 지금 - 중국 대학 기숙사 제도

짜여진 틀 속 '우직함' 배워야

정부 정책 의한 여러가지 제약으로 대학문화 형성에 어려움 따라

중국 강소성 남경에 위치하고 있는 남경대학은 나 이외에도 여러 명의 교환 학생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중국의 대학은 대학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남경대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개방된 중국이지만 아직 공산권국가이기 때문에 일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선별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제약에 맞닥뜨려 보면 MT하면 가보지 못하고 4년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중국 대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대학생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집이 아무리 가까워도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숙사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는 유학생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물론 중국학생 기숙사와 유학생 기숙사는 따로 구분되어있다).

중국 일반학생들의 기숙사는 한 방에 8명에서 10정도가 함께 쓰는 것이 보통이다. 전체적 인원에 비해 방이 좁기 때문에 2층 침대와 책상, 그리고 수납장을 제외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가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이다.

기숙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방이 들어서기도 빠듯한 기숙사 건물 내에 욕실이라고 제대로 있을리 없다. 대신 학교 내에 공동욕탕이 있는데 1층에서는 표를 사고 2층은 여학생이, 그리고 3층은 남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공동욕탕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개방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서 욕실이 구분되어 보통은 인민폐 2.5원(한화 약 400원) 정도이지만 제일 비싼 곳은 1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독특한 점이 많은 중국 기숙사지만 기숙사를 돌보는 '관리원'과 관리원의 눈을 피해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일을 잘도 해내는 학생들을 보면 중국도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중국 학생들이 규칙을 많이 어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숙사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건 특히 전기사용량이 높은 물건을 몰래 숨어서 사용하는 것 정도인데 이것도 매우 유효일때만 있는 점검사 때 들리지 않으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방을 깨끗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년에 한번 관리원이 검사한 것을 토대로 몇몇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원 기숙사제가 특징인 중국의 한 대학 기숙사의 외관.

과 기념품을 주는데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 보다는 그 학생들의 방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적당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이니 만큼 모두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생긴 제도이겠지만 매년 자신들의 공간을 검사받아야 하는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척 마음이 상하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반응을 보여 나서는 다시 한번 생활과 문화의 차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밖에도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그러나 무리할 듯 보이는 이러한 제약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는 데는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새삼 중국의 저력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개혁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법이다. 중국 학생들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우직함을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영희 (인문대 중문4·남경대 교환학생)

동아리 탐방 - 서울캠 극예술 연구회

살아있는 연극 만드는 '아름다운 그들'

희곡 쓰기부터 포스터 붙이기까지 ...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큰 수확

각종 공연 동아리가 밀집해 있는 학생회관 5층에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화려하지 않은 조명으로 비추내는 작은 무대 하나가 있다.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극예술 연구회'가 연습부터 공연까지 연극을 향한 열정을 쏟아내는 소극장이 바로 그곳이다.

색이 바랜 70년대의 포스터부터 얼마 전 가을정기공연 때 선보인 '아름다운 그들'의 포스터까지, 소극장 옆 동아리방에 붙여진 포스터들은 30년이 넘는 그들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

극예술 연구회는 97, 98 대학연극제에 참가해 동상을 수상,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아마추어 연극동아리이다. 하지만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프로에 뒤지지 않는다.

"연극은 인내심이에요." 연극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한 회원의 말은 그들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직접 희곡을 쓰고 연기할 뿐 아니라 포스터 붙이기가 지어는 것 하나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두 달 가까운 연습기간은 서로를 끈끈한 정으로 잇기에 충분하다. 연극 자체보다 연극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에 더 각별한 애정을 갖는 이유



본 공연에 앞서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에 임하는 회원들.

역시 여기에 있다.

85학년 선배들이 직접 전정을 맡고 망치질을 해 만들었다는 소극장에 오를 때마다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낀다는 회원들. 무대 뒤에서 관객들의 발소리를 들을 때와 연극을 마치고 박수를 받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순수관객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늘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극은 체면을 차리고 보는 어려운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라고 말하는 신동준(전자공학)군의 바라는 바는 낯선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연극이 일반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한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다.

'살아있는 예술' 연극을 만드는 극예술 연구회 회원들의 의미있는 욕심들로 그들의 연극도 항상 살아숨쉬기를 기대해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III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Infographic showing hand-washing steps: 1. 손씻기 (Washing hands), 2. 때문에 (Therefore), 3. 감기 (Cold/Flu), 4. 조심하세요 (Be careful). Includes illustrations of people washing hands and a note about the source: (제공: 손짓사랑회)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Price. Items include rice, soup, and side dishes.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Price. Items include rice, soup, and side dishes.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학습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Advertisement for '광고제' (Advertising Festival) with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만화열 정기상영회' (Comic Festival Regular Screening) with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길 창립제' (Gyeongju Circle Anniversary) with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금강 생활관 가을문화제' (Gyeongju Student Life Center Autumn Cultural Festival) with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Price. Items include rice, soup, and side dishes.

경주캠 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Price. Items include rice, soup, and side dishes.